

등록번호 라36627(1984. 7. 12)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권용태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영수(청주문화원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우리문화

2007 9 | 10

통권 190호

목차

- 02 칼럼 지방문화원,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 05 특집 하늘을 보다
 - 가을철 별자리 여행
- 09 • 우리 신화에서의 하늘의 의미
- 13 • 기우제 풍습에 관하여
- 17 연재 한국향토사총람
 - 문화자원 활용과 향토사 대중화
- 24 문화원이야기 복사골 문화일지
- 28 함께 읽는 시 친구여
- 30 기획 우리문화 이야기 <홍>
 - 단원의 해학과 흥
 - 춤에서 바라본 홍의 세계
 - 추임새와 홍의 미학
- 42 섬에 머무르다 증도
- 49 문화원 이야기
 - 포천문화원
 - 이천문화원
 - 김천문화원
- 61 함께 읽는 수필 영화 <씨 인사이드> 鑑賞
- 64 연재 황하로 날아간 삼족오
- 67 문화원 탐방 성남문화원
- 72 책갈피
- 77 지역문화경영과정 수상자 소감
- 78 성곽답사
- 79 향토사공모전
- 80 연합회 리더 • 우리문화 소식
- 82 • 원장동정
- 85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 86 민속이야기 지역의 생업(生業)과 민속

원고는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지방문화원,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문화원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현실은 과거보다 더욱 격렬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요약되는 변화과정은 더욱 심화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 및 여건 역시 이러한 변화의 조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문화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울산 5개 문화원은 열악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지역 문화의 침병' 역을 무난히 해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역 전통문화의 '메신저'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을 마치 '기업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업가' 원장이라는 이유로 문화원을 자신들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폐단도 목격된다. 이러한 지방문화원 현실을 감안, 지방문화원의 문제 및 발전방향을 진단해본다.

지방문화원의 현재

먼저 지방문화원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문화원은 일정부분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원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점 발견과 방향을 정립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공공영역의 지원에 대한 의존 부분이 크며 또 오랜 시간을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유연성 부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부족은 결국 지역의 문화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동원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원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프로그램, 재원,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모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유연한 접근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존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설정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모든 조직의 건강성은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그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에 달

려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원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래비전은 당면한 문제해결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차원의 변화를 바라보고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변화하는 여건을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 주체의 통합 및 연결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문화원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문화단체이며 또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할 문화시설조차 변변히 없는 지역에서 문화원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상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문화원으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게 독점적인 세력으로 비추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세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 역시 문화원이 지향해야할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 여러 문화단체와 활동세력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 역시 문화원이 지향해야할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 문화원의 현 주소에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미래 발전적인 자생력과 개방성, 정체성 필요

지방문화원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장 큰 목표는 자생력 강화다. 우리나라 문화단체의 역사는 대체로 공공영역의 보조에 의존에 의해 성장해온 만큼 지방문화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일정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지원이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이 과연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보조 없이 얼마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기관운영에 일부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원 역할과 기능 가운데 공공성 영역과 수익성 창출 가능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경영개념 도입도 필요하다.

그 다음은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지방문화원은 60년대와 90년대에 그 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여건이 오늘날 너무 변했기 때문에 개별 지방문화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을 모색해야 한다. 시대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의 확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에 입각한 활동 등이 그 주요 방향이다.

무엇보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보존 발굴함으로써 지역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역문화 정체성이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단지 향토문화보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냄으로서 지역문화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바탕이 되는 향토문화 등의 보존계승과 더불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방문화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문화원 자체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지역 간 발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지역간 격차에 따른 문화원간 격차심화는 문화원 공존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차이로 여건과 활동내역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전문성 강화와 문화 활동 사업에 주목

마지막으로 전문성 강화와 문화 활동 영역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력이 문화원운영을 담당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잣대로 흔히 언급된 것이 전문 인력 강화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활동이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보다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 비록 지방문화원 관련법에 문화원의 고유기능을 적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 내에서도 문화 활동의 다양성 추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변화하는 경제 사회 여건과 관련해 노령사회를 대비한 문화 활동,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비율의 증대현상을 반영하는 문화다양성 이념 문화 활동,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국민여가시간 확대 등에 따른 문화원 차원의 문화 활동사업,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반영한 문화 활동, 양성평등 사회적 확산에 따른 문화 활동프로그램 등이 지방문화원에서 문화사업 혹은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주목해야할 영역이다. ☺



김흥두 울산매일 문화부장

가을에는 밤하늘을 보자

-가을철 별자리 여행



가을하늘. 카시오페아자리



천상열차별자리

만원권 화폐를 뒤집어 보면?

올해 초에 새로 나온 만원권 화폐는 새 도안을 선보였다. 새 지폐는 돈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림도 산뜻해지면서 그 모습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만 원 지폐의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 어느 나라이든 지폐에 들어간 그림은 그 상징성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끌며 모은다. 뒷면

은 많이 바뀌었다. 예전 지폐에는 뒷면에 조선시대 왕궁인 경복궁 내에 있는 경회루가 그려져 있었다. 이번 일만 원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둥근 구형의 기구가 선명히 그려져 있고, 그 배경으로 흐릿한 별지도와 한쪽에는 망원경이 보인다.

흐릿하게 나타난 천체망원경은 경상북도 영천군

특집 | 하늘을 보다

보현산 정상에 세워진 보현산천문대의 1.8미터 망원경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으로 보현산천문대는 1996년에 완공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대가 되었다. 비록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리 큰 망원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

지폐의 배경에 그려진 흐릿한 별지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지도는 국보 228호로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의 흑요석 돌에 새겨져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이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인 조선시대 초기로, 새로 창건된 조선 왕조의 권위를 만방에 고하기 위해 새긴 것이었다. 이 천문도는 태조 이성계가 권근, 유방택 등 11명의 학자들에게 명하여 만든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석각 천문도를 참고한 것으로 중앙부 지름 76cm의 원안에 모두 1464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원의 밖에는 하늘을 24구역으로 나눈 동양별자리인 24수가 나타나 있고, 그림의 바깥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천문과 우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천문도는 돌에 새겨진 석각 천문도로는 중국의 순우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지난 1998년, 일본 나라현 기토라 고분에는 7세기말로 추정되는 천문도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였지만 일본은 자기들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천문도의 별을 조사해보니 고구려시대 평양에서 관측된 별 그림이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의 별지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일본에 옮겨둔 것이었던 셈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천문분야지도들은 별의 이름이나 그림이 조선시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거의 같아서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만 원에 그려진 그림은 바로 이처럼 뛰어난 유물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중심부 별 그림을 은은하게 배치해둔 것이다.

가을밤엔 어떤 별이 떠 있을까

화폐 도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별보기를 좋아하였을 뿐 아니라 이처럼 발달된 천문 과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가 별을 좋아함은 당연할 것이다. 가을은 하늘이 맑은 계절이다. 다른 계절에 비해 별보기에 유리하다. 이번 가을에는 밤하늘을 쳐다볼 기회를 가져보자.

가을철 밤하늘은 북쪽 하늘 높이 위치한 밝은 별들과 남쪽 하늘의 다소 어두운 별들이 대조를 이루며 하늘을 장식하고 있다. 가을철 별자리에는 다른 계절과는 달리 일등성 별이 거의 없고 밝은 별들



가을철별자리

남쪽물고기

대부분이 이등성 별들이다. 중국 별자리에 뿌리를 둔 과거 우리의 별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현재 천문학에서 인정되는 별자리는 모두 서양에서 만들어진 별자리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서양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하늘을 둘러볼 수밖에 없다.

가을이 되면 은하수는 북서쪽하늘에서 시작하여 머리 위를 지나 북동쪽 하늘로 흘러간다. 은하수를 따라 북서쪽하늘에는 여름 대삼각형의 한쪽 꼭지점인 백조자리가 저물고 있고, 머리 위에는 가을철 별자리인 페르세우스자리, 북동쪽에는 겨울철 마차부자리가 떠오르고 있다.

가을철 별자리는 북쪽하늘 높이 떠있는 카시오페아자리에서 시작한다. 카시오페아에서 남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려보면 머리 바로 위에서 이등성의 밝은 별 네 개가 큰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 사각형이다. 이 사각형은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수스자리에 속해 있다. 이 사각형의 서쪽 별들을 이으면 천마의 머리가 그

러지고 북쪽에는 천마의 발이 있다. 천마는 하늘에서 거꾸로 매달려 날아다니는 형상이다. 천마 페가수스는 그리스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타고 다니던 하늘을 나는 말이라 알려져 있다.

이 가을의 사각형 북동쪽 꼭지점 별에서 시작하여 부근의 밝은 별들을 연장하면 이디오피아의 공주인 안드로메다자리가 된다. 또 페가수스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안드로메다자리만큼 더 연장하면 페르세우스자리에 이른다. 페르세우스자리에는 가을철 은하수가 희뿌연게 지나가며 별들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페르세우스자리 알파별 주변에는 운동성단이 있어 별들이 많고, 페르세우스자리 베타별은 알골이라는 변광성이다.

가을철 남쪽하늘에는 대체로 별들이 어두워 뚜렷한 별자리가 드물다. 가을의 사각형 아래쪽으로 물고기자리와 물병자리가 있지만 별자리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찾기 어렵다. 물고기자리에는 현재의 춘분점이 있다. 춘분점은 3월 21일 춘분날 태양이 하늘에서 위치하는 지점이다. 춘분점은 천의 적도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천구좌표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춘분점은 지구의 세차운동에 의해 해마다 조금씩 자리가 옮겨지고 있다.

가을철 남쪽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남쪽하늘 지평선 부근에 있는 유일한 일등성이자 외로운 별이란 뜻을 가진 포말하우트이다. 포말하우트는 남

특집 | 하늘을 보다

쪽물고기자리에 속해 있다. 포말하우트는 주변에서 독보적인 밝기를 가진 별이어서 찾기가 쉬우나 남쪽물고기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

가을의 별자리에는 이밖에 고래자리, 양자리, 삼각자리, 조랑말자리 등이 있다.

별을 보려면 어디가 좋을까

별을 보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별이 잘 보이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산꼭대기에 있는 천문대에서 별이 잘 보인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별이 잘 보이는 첫 번째 조건은 불빛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밤을 밝히는 가로등, 네온사인, 차량 불빛 등등 모든 불빛은 별을 보는 사람에게 방해물이다. 그래서 관측 장소는 무조건 불빛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도심에서 별을 봐야 한다면 일단 가로등과 같은 밝은 불빛을 무조건 피한다. 그것만으로도 별은 한층 잘 보인다.

두 번째는 가급적 도시에서 머리 떨어진다. 불빛은 도시를 벗어날수록 줄어든다. 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공기 중에 먼지가 적어져 별이 잘 보인다. 서울시보다 가까운 근교인 경기도에서 잘 보이고, 경기도보다 강원도에서 더 별이 잘 보인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갈수록 좋다. 높은 곳이 좋은 이유는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높은 곳일수록 별빛이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적은 관

계로 별이 더 밝아진다.

네 번째는 강이나 바다 주변을 피한다. 강이나 바다 같은 물 주변은 별을 보기에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다. 불빛처럼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안개가 자주 끼고 대기가 습하기 때문에 별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 날씨가 건조한 계절과 장소가 별이 더 잘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별이 잘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천문대들이 위치한 곳인 경북 영주 지방에 있는 소백산과 경북 영천 부근의 보현산이 떠오른다. 이밖에 별이 잘 보이면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지리산 노고단, 강원도 함백산, 계방산, 태기산 등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대도시 근교의 야산 중턱이다. 수도권 관측자라면 주로 양평이나 가평 같은 곳이 된다. 이정도만 벗어나도 확실히 불빛이 적어져서 하늘의 별이 잘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빛을 피하면서 별을 자주 쳐다보는 일이다. 집 옥상이나 주변 공터, 또는 한강 고수부지 등에서 틈이 나면 하늘을 올려보는 것이다. 하늘을 가까이 할수록 별이 더 친근해진다. ☺



조상호 서울대 공학박사/천체사진가

신화를 담은 하늘을 바라보다

- 우리 신화에서 하늘의 의미



신화의 활동무대, 하늘

신화는 그것을 만들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문명에 대한 생각을 언어로 실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의 보고이며, 문명의 어머니가 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것과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즉, 신화는 하늘이 중심 무대가 되며, 그곳에 사는 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은 신의 활동무대가 되는 곳으로 주로 나라를 세운 신령스런 존재의 근거지가 된다. 제주도의 삼성신화를 제외하고 우리 민족의 모든 신화에는 하늘이 핵심적인 소재로 등장한

다. 단군신화에는 땅에 사는 웅녀가 하늘에 사는 천제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고, 고구려 건국신화인 동명성왕신화에서는 하늘의 햇빛이 유화부인의 몸에 들어와서 주몽을 낳는다. 이러한 사정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일어난 가야나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서는 알의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신화에는 모두 하늘이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우리 신화에서 하늘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씨가 있는 공(空)의 세계, 둘째,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 셋째, 왕의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공간으로 백성들이 사는 세상 등이 그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담긴 공의 세계

공의 세계는 나누고 또 나누어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아주 작은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만물의 근원인 종자가 아주 작은 알맹이의 형태로 녹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말은 하늘이란 무한하게 넓고 큰 어떤 것이며, 그 속에는 우주내의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늘은 행성과 행성 사이의 간격에 의해 생기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하늘이 만물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하늘로 지칭되는 공간에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것이 녹아 있어서 우주내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형태의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미세한 어떤 것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근원으로 하여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야기의 형태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신화의 하늘이며, 공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웅녀의 배필이 되어 단군을 낳게 한 환웅과 유화부인의 남편으로 주몽을 낳게 하는 해모수, 알의 형태로 태어난 가야와 신라의 시조인 김수로왕과 박혁거세를 보내준 곳 등이 모두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신화에서 하늘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녹아있는 형태인 공의 세계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된다.

백성의 이상을 담았던 하늘

신화의 주인공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능력을 지닌 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능력을 가진 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 인간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몸을 바꾸어서 변신을 하거나 인간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인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천제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상을 탐내서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나 하늘의 신인 해모수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유화부인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부족이나 구간(九干)의 요청에 의해 알의 형태로 임금을 내려주는 것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 사는 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인간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사는 신의 근거지가 바로 인간 세상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늘에 사는 신이 바로 땅에 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은 땅에 사는 인간이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을 담은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늘은 높고 멀리 있지만 언제나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땅은 하늘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의 세상은 현실이요, 하늘의 세상은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하늘은 너무나 높고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간세상과 직접적으로 통하기가 어렵다. 그런 관계로 신화에서는 신의 심부름꾼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나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를 보내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세계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하늘은 왕을 낳고, 백성은 하늘을 낳고

왕은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아들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우리 신화에도 그렇게 나타난다. 왕은 신에게서 받은 특별한 능력과 함께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가 된다.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가 하늘을 대신한 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하늘에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왕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왕이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하여 패륜적인 행동을 마구 한다면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도 없이 클 것이기 때문에 왕의 위에 하늘을 두고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아들인 왕이 함부로 행동을 하면 하늘에 사는 왕의 아버지인 신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날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의 행동을 감시하는 존재로서의 하늘은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하늘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향을 이야기의 형태로 실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은 왕을 낳고, 백성은 하늘을 낳으니 왕이야말로 백성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우리 신화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리 신화가 간직한 하늘의 세 가지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화는 바로 고구려(高句麗) 건국신화인 동명성왕신화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고구려라고 읽지만 원래 발음은 고구리였다. 고(高)는 높다 뜻이니 땅의 위에 있는 하늘을 가리킨다. 그리고 려(麗)는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뜻을 지니는 의미가 되고 발음은 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하늘에 걸려 있는 나라란 뜻이 되어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 된다. 고구려가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올바르게 새기면서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공경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



손종흠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늘에 올리는 기도, 기우제

-기우제 풍습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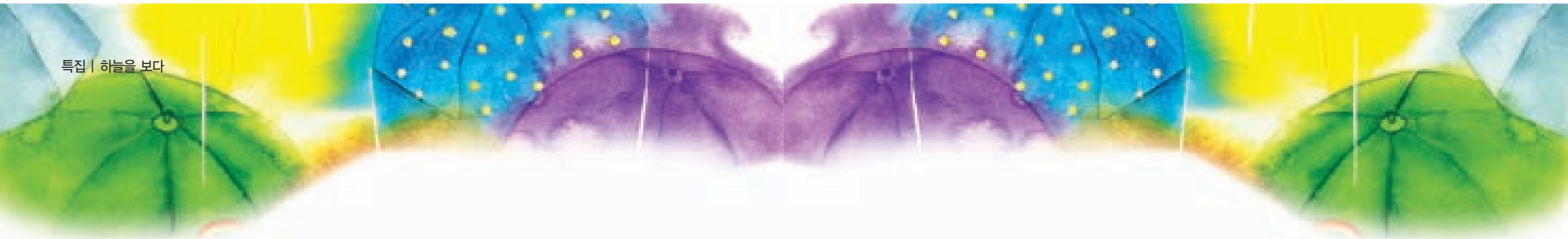
올 여름은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다. 장마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가을장마가 와 8, 9월 들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내렸다. 아무리 온난화의 영향이라 하지만 오죽했으면 비가 그만 내리도록 기청제(祈晴祭)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기우제는 언제부터 지냈을까

기우제는 가뭄이 극심할 때 비는 제사이다. 그 역사는 오래 되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옛 부여의 풍속에서는 비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익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리고 혹은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든가 혹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기록은 비에 대한 염원이 얼마만큼 간절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진평왕 50년에는 가뭄이 극심해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고려시대는 그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인종 원년(1123) 5월에 가뭄이 심하자 흙으로 용을 만들어(土龍) 놓고 무당을 불러 기우제를 지냈으며 맑을 때는 무당이 무려 300명 가까이 되었으며, 시장을 옮기고 원시장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를 지내는 사제자는 위로는 국왕을 비롯해 문무백관, 지방수령, 승려, 무당들이 동원되었다. 제의 대상이나 장소도 천지, 산천, 종묘, 사직, 사찰, 우물 등 광범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태종 원년(1401) 4월에 가뭄이 극심하자 무녀를 불러 기우제를 지냈고, 동왕 5년 5월에는 송악(개성)의 큰 샘에서 무당을 불러 지냈고, 10년 5월에는 무당 70여명을 모아 서울 백악산당에서 기우제를 행했다. 세종 때에는 예조에서 유사를 개성에 상주케 하여 가뭄이 심할 때 승려와 무당을 모아 기우제를 지내도록 했다. 중종 때에는 3일이 지나도록 기우제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자 왕이 친히 무당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인조16년(1638) 3월에는 가뭄이 극심해 매월 초이튿날을 기우제를 지내는 날로 정하고 맹인과 무당, 동자들을 시켜 비



를 빌게 하고, 집집마다 병과 버들가지를 걸어 놓고 비 오기를 기원하였다.

기우제는 종묘와 사직단을 비롯해 경북궁 근정전, 경희루, 창덕궁, 사찰, 삼각산, 남산, 한강 등 산천 등에서 지냈다. 다음은 성현(1439-1504)의 『용제총화』 권7에 나오는 기우제의 절차이다. '먼저 한양 오부(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로 하여금 개천을 수리하고 밭 두둑을 깨끗이 한 다음 먼저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이어 사대문에 제사를 지낸 후 오방의 용신에 제를 지내는데, 동쪽 교외에는 청룡을, 서쪽 교외에는 백룡을, 북쪽 교외에는 흑룡을, 남쪽 교외에는 적룡을, 중앙 종루거리에는 황룡을 만들어 놓고 관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되 3일 만에 끝낸다. 또 한강(용산) 저자도에 용제를 베풀어 도가제류(道家者流:도교를 닮는 사람)로 하여

금 용왕경(용제를 지낼 때 읽는 경문)을 외우게 하고, 또 호랑이 머리를 박연폭포와 양진에 던진다. 또 창덕궁 후원과 경희루, 모화관 연못가 세 곳에 도마뱀을 물동이 속에 띄우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수십 명이 버들가지로 동이를 두드리며 소리를 울리면서 큰소리로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여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라>하고 현관과 감찰이 관과 홀을 정제하고 서서 3일 동안 제를 지낸다. 성내 모든 마을에서는 물병을 놓고 버들가지를 꽂아 향을 피우고 방방곡곡에 누각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 비를 부르며, 또 저자(시장)를 남쪽 길로 옮기어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가뭄이 심하면 왕이 대궐을 피하고 반찬을 주리고 복을 울리지 않으며, 억울하게 갇힌 죄인들 살피 풀어주도록 한다.'

이처럼 천재지변이나 가뭄이 생기면 먼저 국왕과 조정 대신들이 덕이 없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 여겨 근신을 하고, 국왕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원통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다. 또 음양불화는 가뭄의 원인이 된다하여 가난한 집 처녀들의 혼인비용을 돕기도 하였다.

기우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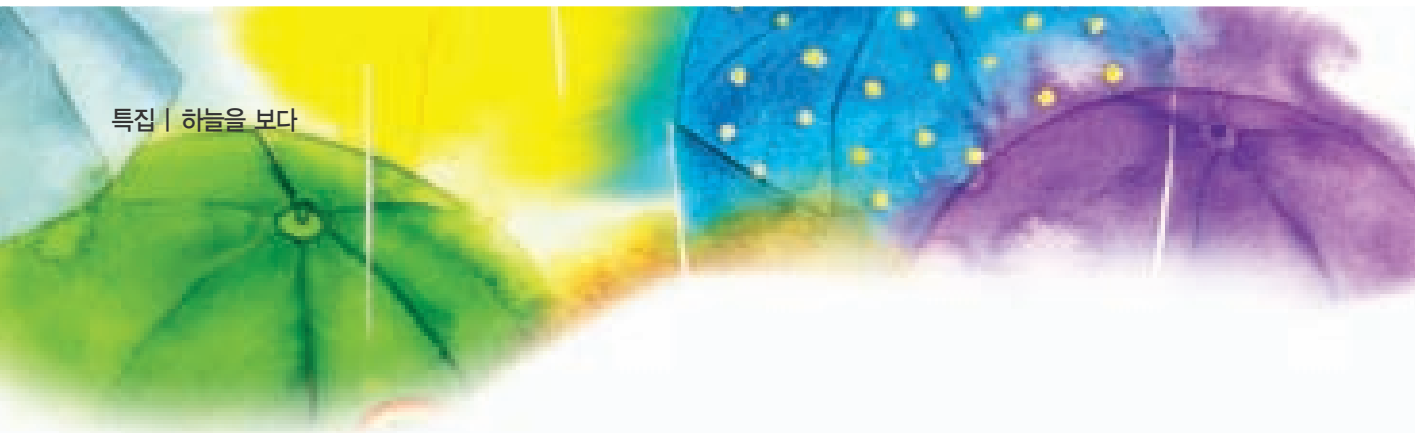
필자가 어렸을 때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날을 정해 저녁 무렵 마을 분들에게 각자 키를 들고 마을 공동 우물로 모이도록 한다. 다 모이면 두레박으로 물을 퍼 키에 담아 까불면서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새마을 운동으로 공동 샘을 시멘트로 덮개를 덮으면서 마을의 기우제는 없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우제는 그 유형이 150여 가지나 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비 오기를 기원하는 방법이다. 영남 지방에서는 한밤이 계속되면 마을 부인들이 다른 마을의 디딜방아를 훔쳐 곡을 하면서 운반해 모래사장에 거꾸로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 여자의 고쟁이를 살짝 엮기도 한다. 여자의 속곳을 엮는 것은 여자의 음기로 비를 부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산상분화(山上焚火)이다. 마을 사람들이 장작이나 솔가지, 시초 등을 산 정상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을 지른다. 이는 양기인 불로 음기인 비구름을 부르는 것 혹은 천신이 오르내리는 길을 밝힌다는 의미라 한다.

세 번째는 시장을 옮기는 것이다. 이는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오랜 전통이다. 비가 내릴 때까지 옮긴 새 장터에서 계속 장을 벌인다. 날이 가물면 남대문을 폐쇄하고 북문을 개방하며 동시에 종로의 저자를 남쪽으로 옮긴다. 기인 시장을 옮기면서 남문의 양기를 막고 북문의 음기를 들이고 음기인 비구름을 맞으려던 주술적 행위이다. 또한 시장을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임금이 관장하는 조정은 양이요, 왕후가 관장하는 저자는 음이기 때문에 왕성한 양기를 시장의 음기로 중화시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네 번째는 동물을 잡아 머리를 물속에 넣는 행위이다. 주로 호랑이 머리나 돼지머리, 개의 머리 등



을 넣거나 피를 뿌려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이는 제장 또는 용이 살고 있다고 믿는 곳에 가장 불결한 짐승인 돼지나 개를 도살하여 넣거나 피를 뿌려 제장을 불결하게 함으로써 비를 내려 이를 정화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마을 또는 고을의 진산에 암장한 시신을 파내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명당인 진산에 암장을 해 더럽혔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믿어 암장한 무덤을 찾아 파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외에도 물병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거나 병에 물을 넣고 술잎으로 마개를 문 위에 거꾸로 매달아 마치 비가 오듯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



정종수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문화자원 활용과 향토사 대중화

마지막으로 향토사 대중화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을 거론하여야 한다. 바로 문화자원 활용과 향토사연구의 연계문제가 그것이다. 대중화와 홍보의 차원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그 까닭은 축제, 이벤트, 문화산업 등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특수한 문화자원이 외부에 알려지고 상징이 되어 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사와 연구보다도 홍보 효과의 면에서 이러한 분야의 활용이 몇 배나 더 크고 강하다는 현실, 그리고 반대로는 이들 분야에서 보이는 가치 전도, 주객전도, 특성 왜곡의 사례들이 적지 않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향토문화자원의 정체성과 경쟁력

흔히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세계의 '지구촌'화 경향은 경제·군사적 경쟁보다는 각국 간의 다원적 협력·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권역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은 한 나라가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출하는

문화적 부가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지역간·국가간 교류 및 협력도 경제중심에서 사회, 문화 분야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특히 문화 부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산업, 문화 경쟁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으로 문화가 활용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음이 있다. 재능도 각각이려니와, 스스로 강조하는 자신의 자랑거리들도 모두 다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향토문화자원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

문화와 역사는 인간이 환경과의 부단한 적응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또 지역의 전통문화, 즉 향토문화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문화는 자신들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다. 역사 문화전통들은 그 토양과 속성은 문화 주체들의 확실한 “밑뿌리”이자, 온축된 가능성의 예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문화적 동질성, 정체성, 특수성이라고 표현해도 좋다)는 이미 과거의 역사경험 속에서 충분히 실험되고 평가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의 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다. 나아가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반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 시대, 문화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미래사회에서 우선 필요한 작업이 바로 향토의 전통문화자료(기초 데이터, 콘텐츠)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정확한 기초 데이터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물찾기 식의 문화산업 추진이나, 정책 개발에 대하여 의구심이 크며, 또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경쟁력과 가치가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의 올바른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모습에 현혹된 채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각종 이벤트와 문화행사, 기술만의 정보화, 퇴행적인 문화 교육 등등 혼돈과 불균형이 판을 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대개 몇 가지 의식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 첫째는 문화를 가치 있게 보고,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 유용하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는 이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 진일보하여 적극적으로 이들 자료를 포장하고 활용(상품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 문화자원의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추구 경향은 문화적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수요가 보다 다양화·고급화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의 대상이 이제는 점차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전통·과거지향보다는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자원 활용을 살펴보면, ① 기초자원(콘텐츠)의 정리수준, ② 소프트웨어의 개발 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하드웨어의 유기적 효용성과 경쟁력 부족 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문제는 정체성 확보의 기초 작업으로 지역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될 수 있다. 즉 기초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을 왕왕 발견하게 된다.

대개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기초자료(콘텐츠)의 정리문제, ② 육성 아이템 선정과정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유기

적 효용성과 경쟁력 문제가 거론된다. 즉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문화 자료들이 영역별로 조사·수집·정리되고 그 바탕위에서 문화 특성과 상징성(정체성)이 점검되고, 그 후에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자원 활용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요즘은 부족하여 콘텐츠가 더 중시되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시급히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역별로,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기초 자료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설정되고, 그 자원들을 문화산업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민 역시 그 부분에 동참하거나 유용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경쟁력을 고려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엿보면서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하여 '보편론의 획일화' 내지는 획일적 중앙모델의 '매판적 답습'이 적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상충과 갈등도 왕왕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지역 정체성 확인보다는 보물찾기 식 일부 자료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엿보면서 포장하는 '무차별과 획일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과 같은 경향도 생기게 된다. 좀더 부연하면,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하며,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과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이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향토문화자원의 활용 문제점은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문화의 산업화 노력들이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물론 그 내용과 갈래들은 문화관광자원화라는 부면에 집중되고 지역축제, 관광개발, 지역 문화상품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축제의 경우 단골로 제기되는 비판 논의 중에서 예컨대, '지역정서가 담긴',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향토의 역사성 있는',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행사 개발' 등 단골로 등장하는 술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는 말일 것이고, 그 필요를 인정한다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와 같은 문화산업의 사례들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선행조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무리 그러한 현실적·정책적·경제적 요청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지역적인 공감대'와 '지역민의 동질성 확보' 라는 대 전제, 즉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재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一回의인 再現"과, 전통의 내면적 계승이 아닌 "外形만의 再造"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즉 문화산업의 자원활용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이자,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이나 그 개발이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라거나 ?외지인을 위한 투자?라는 식으로 오인되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이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민의 자의식 고양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활용의 무한 가능성 -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

21세기 문화가 H/W보다 S/W·C/W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정책이나 행정, 계획분야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초적 노력이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서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가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정리는 소프트-하드웨어의 연계체계 속에서 활용의 방안을 고려하고 콘텐츠를 정리하여 주고, 이를 응용할 개발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수적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문화 콘텐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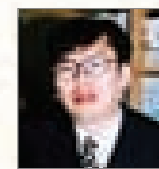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마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역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축제와 이벤트, 문화재 복원정화(건축), 하드중심 관광개발 등). 그리하여 필자는 항상 1천개의 콘텐츠 확보와 5-10종의 소프트 개발, 1-2개소의 하드웨어 구축이라는 분명한 단계적 노력이 관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원 조사정리와 분석, 나아가 활용의 방안까지도 고려하는 일관성 있는 자세가 요청됨을 주장한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객관이나, 상징성·정체성·경쟁성·투자효율성 등등도 점검이 가능할 것이고, 여러 유형별, 그리고 수요층의 수준별, 나아가 활용 방향을 감안한 콘텐츠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관광개발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 목적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홍보 팸플릿 홈페이지의 문화관광정보).

문화자원이 활용될 때, 우선은 그 문화를 대하는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다양한 문화 체험 이벤트 개발, 패키지 구축, 비교문화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첫째 유형별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교육형 / 관람형 / 체험형 / 레저형 / 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거나, <역사 / 유적 / 생태 / 민속 / 특산 / 음식 / 인물> 등의 소재와 테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개발은 강한 문화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 있는" 콘텐츠로 특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요구,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2008 북경 올림픽 특수의 예)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대상하지 않는 계획과 개발은 매우 불안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렇듯 수요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수요에 맞도록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의 대상에 따른 기호도,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의 내

용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 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본다. ☼



이혜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복사골 문화일지

정성으로 근무했던 복사골 시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복사골'이란 이름과 글자만 봐도 정감이 가고 연민을 느낀다.

과거 문화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부천에 복사골이라는 한 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어 문화에 목마른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가가 마음을 다해 벽돌을 쌓아올리듯 필자도 그런 마음으로 '복사골'이란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고 행여 허물어 질까봐 온갖 정성을 다했기에 오늘의 복사골이 존재한 것이라 자부한다.

복사골 문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4년. 당시 문화원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어 자주 들러 바쁘고 필요할 땐 행정을 도와준 게 계기가 되었다.

사무실은 부천군 소사읍 사무소 내에 슬레이트 지붕의 10평짜리 가건물에 부천문화원과 한국반공연맹 부천시지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작은 규모의 부천군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후원회장으로 있는 이경수 씨가 문화원장으로 있었다. 반공연맹 지부에는 전 국제 라이온스클럽 총재였던 이필용 씨가 맞고 있었으며 사무국장은 전 부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 홍홍표 씨

였고 그 밑에 세 명의 사무원이 두 개 단체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었다.

모든 행정이 불펜이나 철판, 붓으로 일일이 써야 했고 각종 행정서식이나 양식 등은 그러서 써야 했다. 가끔 많은 공문을 작성할 때는 '가리방'이라고 하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잘하려 해도 용지가 찢어지거나 등사할 때 잉크가 옷에 묻어 옷을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니 업무의 능률은 기대하기 어렵고 항상 행정을 도와줄 자원 봉사자가 필요한 시기였다.

홍홍표 씨도 부천 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후임으로 전 부천군 오정면장이었던 고 광진 씨가 사무국장으로 왔다. 약 2년여 후에 나는 두 단체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여 총무계장직을 맡게 되는데 막상 직원으로 들어와 보니 그야말로 두 단체는 모두 속빈 강정이었다. 예산이래야 이사와 운영위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보니 급여조차 제때 가져가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각종 문화 사업이 나에게 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문화원 사업으로 정부의 홍보사진 전시 및 영화상영, 문화행사와 기념축제 등이었는데 처음 추진한 사업이 부천시 승격기념 경축 문화행사였

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혔지만 원장님과 이시들께서 많이 도와주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1978년, 송승영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어머니 합창단, 직장대향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등 문화 행사와 축제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건전가요 보급, 문예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초·중·고·일반 시민의 백일장, 사생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천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행사명칭도 복사골로 바꾸었다. 그리고 백일장, 사생대회의 우수 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발행하기로 하고 책의 제호도 '복사골'이라 해서 매년 발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넓히기 위해 각 학교의 문예활동을 지원,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시상하기도 하였다.

문화가 살아야 복사골이 산다!

직원으로 있던 고 최광희 씨가 새로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반공연맹 업무를 담당하고 필자는 문화원 일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막상 문화에 빠지고 보니 딱딱한 반공보다는 문화에 대한 매력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문화원과 반공연맹의 업무를 분리시킬 것을 송승영 문화원장에게 건의하고,

얼마 후 양쪽 단체장의 협의 하에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1983년 7월, 입사한지 7년 만에 문화원과 반공연맹의 업무가 분리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최광희는 반공연맹 사무국장이 되고 필자는 부천 문화원의 초대 사무국장이 되었다.

독자적인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의 날 개를 펴면서 부천을 복사골 문화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우선 부천문화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1966년 3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약 17년간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문화원 등기 같은 것은 취급해본 법무사가 없었기에 더욱 난감했다. 송승영 원장과 함께 부천등기소 소장을 찾아가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실정과 지금까지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점,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현황까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등기소장도 한참을 생각하더니 누락된 등기의 벌금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벌금 없이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그 등기 소장님과 법무사 사무실 이문주 사무장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홀가분한 마음으

로 그해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시작으로 예술제, 복사골 음악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천에서 유일하게 맥을 이어가는 각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연례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MBC와 지금은 없어진 TBC TV 등 방송국의 협찬을 받아 녹화중계로 전국에 방송하여 부천을 복사골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다했다.

축제가 자리 잡고 각종 예술제가 결실을 맺어갈 무렵 부천에 예총지부와 음악협회가 결성되면서 부천음악의 발전을 위해 음악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음협으로 이관해 주었다. 물론 전문가단체인 음악협회에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동안 애써 조직하고 애지중지 하며 발전시켜온 애착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었다.

평소에도 문화는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다른 장르의 지역문화를 개발하여 향토고유 민속예술 및 세시풍속의 발굴 전승, 보존, 육성을 위해 장말 도당굿 복사골 농기 고두마리를 비롯해서 연날리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널뛰기 각동 농악경연 전통혼례 등과 기록 문화 창달을 위해 고 최은휴 씨와 구자룡 선생의 도움을 받아 85년 '향토자료집 복사골문화' 창간호에 이어 2집을 발행하였으며 89년부터는 부천의 문화예술 종합정보지인 '월간 복사골 문화'의 새

로운 장을 열고 월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방 문화원 월간지로서는 부천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복사골 문화와 수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수원사랑'이 지방문화원 월간지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한 향토문화의 특색 사업인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였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과열되기 시작하여 각동에서 대표 한두 명씩을 추천해야 하다 보니 자원(?)이 없는 동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빼고는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가 향토아가씨 선발대회로서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이후 한때는 전국 각 지방에서 향토 아가씨 선발대회가 큰 붐을 이룬 적도 있다. 그러던 중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성계의 반발로 지금은 보기 어려운 모습이 된 것 같다.

부천시의 문화를 이끌었던 부천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청소년 향토문화 강좌와 졸업 진학기 생활지도, 경로효친사상 선양, 충효 및 도의 선양, 음악, 다도강좌, 복사골 문화논단 등 복사골을 종합문화예술의 도시로 승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지금까지 잊지 못할 사업은 '경인 미술대전'으로 1984년 11월 부

천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회 복사골 미술대전'의 전신이다. 당초 이 행사는 부천시 당국이 미술인 협회에서 개최해줄 것을 제의했으나 예총지구회나 미협 회원들이 '복사골'이란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촌스럽다느니, 너무 작은 이미지를 풍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회 명칭을 '도원 미술대전'으로 개최하자는 제의를 해왔으나 이를 거부하여 '제1회 복사골 미술대전'을 부천문화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 미술대전이 부천 미술의 큰 획을 그었다. 그리고 부천이 명실상부한 '복사골'로 자리매김하자 그때부터 예총에서도 각종 예술행사를 복사골이란 이름으로 개최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복사골 종합 예술제'이다. 지금의 부천이 복사골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전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시로서는 예술인들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음에 거슬렸지만 모두가 복사골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료와 사연들이 있지만 복사골 문화를 위해 애써주신 그 당시 송승영 원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부천이 복사골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정착하고 지금도 도심 속 곳곳에 빌딩, 회사, 식당 등 각종 사물들이 복사골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감회에 젖기도 하고 더 많은 애착을 느낀다. 다만 근간에 와서 부천문화원 전·후 실무책임자들의 운영 미숙과 규정을 이탈한 일련의 사건들

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을 보고 전국의 문화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보며 이 또한 발전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정보시대를 넘어 IT시대를 달리고 있다. 세계화의 화려한 문화 속에 무작정 편승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 고유의 소중한 향토문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향토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문화가족 모두가 해야 할 소임이라 생각하며 우리 고장의 어느 한 작은 곳이 세계문화의 발상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태훈
한국문화원연합회 전 사무총장



함께 살아있다는 것
 이 세대의 모든 이는 정말 반갑다.
 나 너 모르고 너 나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날 일 없지만

젊은 시절부터 우리 함께 같은 땅 하늘 아래
 같은 말하고 같은 음식 먹으며
 숨 쉬며 살아왔으니
 서로 만나 말 건네고 어울리지 못했다 손
 그게 뭐 큰 탈이 될 수 있는가.
 그 시절 같은 유행가 불렀고 같은 울분 토했으니
 한 세대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훌륭한 친구인 식구가 아닌가.
 함께 살아 있다는 것
 이 큰 진리 앞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늘 향하여 감사의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다.
 친구여, 친구들아.



장승재 시인 / 전 경북문인협회장

흥으로 그렸던 우리 선조의 화폭

- 단원의 해학과 흥

두 사람이 중앙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제각기 둘러앉아 씨름을 구경하는 풍경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씨름을 하는 이의 역동성도 그렇지만 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표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흥을 읽는다. 한껏 뒹뚱이 한 폭에 담았던 우리 선조들의 흥, 그 안에 과연 어떤 것이 담겨 있었을까.



종합적인 형태의 흥, 코리아

원시인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낼 때 신을 만나는 접신을 하기 위해 노래와 춤을 동반하게 된다. 이때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춤과 음악, 시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행위를 그리스어로 코리아(choreia)라고 말한다. 합창을 의미하는 코러스(chorus)의 어원이다. 여기에서 흥(興)은 그러한 행사를 북돋우고 서구적 의미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하는 충동을 말할 것이다. 이러한 충동은 대개 특별한 여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무(歌舞)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집단행위는 일상의 삶에서 쾌락 추구로 점차 바뀌어간다. 과거에는 제사나 축제와 같

은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던 행사가 점차 볼거리를 위한 예술행위로 분화된 것이다. 코러스도 합창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흥을 북돋아주는 것은 일종의 축제의 분위기이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볼거리에서 쾌락적 여흥을 찾는다. 그것은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흥과 쾌락을 동일시하는 풍토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미술 보다는 음악과 그것을 동반하는 무용이나 연주회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미술에서는 직접적인 흥을 주기보다는 흥을 북돋아주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감상자는 그 장면과 동화될 때 살아난다.

조선 말 풍속화에서 보여 지는 선조들의 흥

우리선조의 작품들에서 그러한 흥을 묘사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개 산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선비들은 도교의 영향으로 정적(靜的)인 정경을 즐겨하였고 자연과 일치를 찾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흥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적으로 만드는 반면 선비들은 안정된 정신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흥은 동적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빠른 움직임을 추구한다. 자연보다는 인간의 삶 자체가 짧으면서 빠른 시간의 흐름임을 말한다. 이러한 풍토아래 조선 말 풍속화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조금씩 찾을 수 있는 여흥의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풍속화의 확산은 서구의 실증주의와 병행하는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풍속화 이전에 계회도(契會圖)나 궁정의 기록화에서 일부 가무(歌舞)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기록화가 필요했던 궁정이나 사대부의 요구에 의해서 계회도에서 인물 묘사는 시작된다. 인물들의 묘사가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계회도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가무 장면 같은 것이 민속화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전체 커다란 행사의 묘사에 비교하면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일상(日常)과 풍속화의 만남

조선말 풍속화는 단원 김홍도(1745~?)와 궁재 김득신(1754~1822), 혜원 신윤복(1758~?) 등 도화서 출신 작가들에 의해서 유행한다. 이들 중 단원의 작품은 해학적인 면에서나 묘사의 기법에서 탁월함을 드러낸다. 궁재의 작품이나 혜원의 작품은 단원의 것들과 묘사력에서 별 차이를 볼 수 없으나 모두 정적인 단순함을 지닌다. 반면 단원의 작품은 인물묘사에서 동작의 흐름과 표정이 잘 드러나 보는 사람에게 흥을 북돋아 주고 있다.



단원의 작품의 내용은 크게 백성들의 생활을 그린 풍속도, <마상청앵도>와 같이 양반 사대부의 취향을 반영하는 산수화, <기노세련계도>와 같이 국가나 궁중 행사를 그린 기록화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원의 풍속도첩(風俗圖帖)은 1745~1816년(영조 21~순조 16)에 실린 풍속화들이다. 이 도첩은 순수 민속적 내용을 그린 다폭첩(多幅帖)으로 대체로 향토의 세시기(歲時記)나 서민의 일상사를 주제로,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장면들이다. 이 도첩에는 양반과 서민의 만남, 시장에서 풍경, 백성의 평범한 삶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도첩에 실려 있는 내용은 산수화의 인물들에서처럼 신운(神韻)이나 고요함 보다는 활기 있는 시경의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필치는 산수를 그리듯이 수묵 담채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신선(神仙)이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은 드물고, 오히려 상상을 배제하여 정확한 객관적 묘사이면서도 배경이 없는 분위기에서 동적인 인물들의 행동이 돋보인다. 장면들은 전통적으로 조감도의 특성으로 시선이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단원의 특유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단원의 분위기는 혜원의 부르주아적 시선과 비교할 때 더욱 잘 나타난다. 여성의 묘사에 뛰어난 혜원의 작품은 조선 양반 계급의 행락을 주제로 하면서 일상과 거리를 지닌다. 내용에서 흥을 돋우기보다는 쾌락적 장면으로 장식적이다. 공재의 풍속화도 세련된 묘사에서는 단원보다 앞서지만 동세가 떨어져 흥이 오르지 않는다.

일상의 흥을 담아놓은 화폭

우리에게 흥을 북돋우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품은 아무래도 단원의 <씨름>, <무동도>일 것이다. 이 그림은 선의 표현과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물의 표정이 내용과 힘 있게 결합하여 준다. <씨름>은 주변에 구경꾼을 꽉 채우고 가운데 씨름하는 장면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구경꾼들 중에서 큰 갓을 쓴 양반들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총각들의 자세가 서로 다르면서도 편안하게 앉아 씨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몇 장사의 시선은 그림 밖을 향하고 있어서 더 많은 구경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하다. <무동도>에서는 여섯 명의 악사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무동은 왼쪽 아래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다. 왼쪽을 열어 놓아 구경꾼들이 그 쪽에 있음을 상상하게 해준다. 이 두 그림에서 무엇보다도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이 일상적인 삶에서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다. 씨름판이나 춤판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음악의 흥겨움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또한 그림의 중심에 있는 씨름꾼이나 무동의 동작은 역동적이면서 그림의 감상자에게 그 동세를 전이 시킨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과거 제례행위와 다른 의미에서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단원의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인물들의 표정에서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해학이 넘쳐 있다. 그 해학은 오늘날 흔하게 접하는 만화나 카툰(cartoon)과 같이 취급될 수 없는 특별한 시선을 만나는데서 흥이 솟아나게 한다.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왔던 미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



조광석 미술평론가

신명의 세계, 우리의 춤사위 속으로

- 춤에서 바라본 흥의 세계

우리들은 춤추는 이의 몸짓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춤을 천문적으로 추거나, 춤을 자주 껌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정서에는 이마도 조상들이 그려줬듯 신명의 기운(氣運)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흥을 풀어냈던 우리의 춤사위로 힌편 들어가 보자.

우리 춤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춤이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우리 인간생활 속에서 흥으로 신명으로 존재해왔다면 춤은 인류문화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동양춤과 서양춤 특히 우리의 춤과 서양의 춤은 그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글로벌시대니 디지털시대니 하며, 외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문화인양 토착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과 미용을 위한 춤의 문화를 살펴보면 에어로빅(Aerobic dance), 힙합(Hiphop),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재즈(Jazz), 터보(Turbo), 요가(yoga) 등... 반면 우리의 춤은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대중화, 보편화는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체성이 없는 인기몰이의 기획만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 문제일 것이다.

상호를 긍정적으로 묶는 우리의 춤사위

서양의 춤문화가 주체나 개체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관적이며, 냉철하게 OK, NO로 신명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우리 춤의 문화는 주체와 개체를 상호 긍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춤꾼을 더욱 신명나게 만드는 것은, 춤 동작을 연결하는 사이에 흥을 돋우는, 주고받는 개체의 소리로서 "얼씨구, 그렇지, 얼썬, 지화자, 좋다" 등등의 추임새가 있다 그것은 춤추는 상대방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며, 정신을 편안하게 하여, 극도의 신명을 오르게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문화(정신-spirit, 가슴-Hearty)이며 우리 춤의 특징인 것이다.

인간 내면의 감정을 수양버들과 같이 흥에 겨워 자연스레 움직이며, 인위적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움직임을 통하여 카타르시스(Katharsis)를 느끼게 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카타르시스'의 원 뜻은 소화불량 때 먹었던 약의 이름이다. 즉 더부룩하던 것이 해소될 때 동반되는 쾌감을 말하며 일종의 배설의 기쁨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많거나 불쾌감이 쌓여있을 때 한바탕 울거나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단든지, 무거운 마음을 어디에서든 고백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일 것이다.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던 방식, 춤

주부들이 일상생활에 간혀서 살다가 관광버스만 타면 하루 종일 버스 안 좁은 공간에서 정열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죄를 지었는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나,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마치 그 죄를 사함을 받은 듯이 위안을 주어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하게 하는 것이다. 즉 카타르시스는 종교적으로는 정화작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중세시대의 '타란톨라 춤' 과 '죽음의 춤' 이 바로 그 일례이다.

'타란톨라' 라는 거미에 물렸을 때 미친 듯이 춤을 추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어 광기를 부리며 추었



고, '죽음의 춤'은 무덤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춤을 추었다. 이런 춤들은 엄청난 광기를 부리며 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엑스터시와 카타르시스 즉, 흥과 신명의 절정을 느끼게 되면서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흥과 멋으로 추는 우리의 춤

우리 춤은 몸짓에서의 움직임이 흥이 본이요, 멋을 상징으로 한다. 우리 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흥'은 곧 '신명'이요 '인간의 정신(기운-氣運)'과 '삶의 카타르시스'를 바탕으로 한다. 신명이란 사람의 기(氣) 가운데 흥(興)으로 발현되는 것이 신명(神明)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명은 그 신(神)이 악신(惡神)의 신이라기보다 맑은 정신의 신이다. '악신'의 신으로 이해하면 곧 '신'이어서 신다움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야 뜻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를 지닌 인간의 기운이란 무엇일까.

최한기의 한국 문학사와 철학사에서는 '기(氣)'를 신기(神氣)라고 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해 나타내는 과정을 신기의 발현이라 했다. '기'는 활동변화를 기본 특징으로 한다. 하며 사물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터득하면, 말을 하는 것 마다 모두 영기(靈氣)를 지녀 용이 꿈틀거리는 형체를 갖추고 만화(萬化)를 녹여서 지닌다고 했다. 그래서 이루어진 표현물을 받아들이는 쪽은 "신기"가 흔들리어 움직이고 쉽사리 감통(感通)하게 되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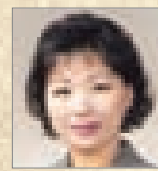
천지만물과 함께 사람도 수행하는 활동변화를 표

출해서 공감을 이룩하는 주체가 되는 '기'를 '신기'라고 하면 신기가 바로 그 '신명'일 게다. 신은 양쪽에 다 있는 같은 말이고 '기'를 '명(明)'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신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묶는 우리의 춤

우리 춤의 신명으로 자신들의 뜻과 이치를 민중들에게 펼쳤던 학자이자 사상가들인 원효대사와 수운 최제우의 예를 들어보자. 원효는 광대 스승에게서 배운 춤을 추며 전국 각처 수많은 마을로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으며 최제우는 칼춤을 추면서 동학의 이치를 구현하고 선호하였다고 한다. 이 의미는 아마도 우리 춤의 몸짓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흥과 신명이 본(本)이기에 춤을 추는 행위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바꾸어 놓아 서로 융합될 수 있게 하는 신명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륜도덕을 분명하게 해서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은 '홍겨움의 위력을 인정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라는 한 국악인의 외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삶과 민속의 자취에서 한국적 예술양식이나, 기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춤은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가 농축되어 있는 역동적 에너지 창고로서 면면히 이어져가야 할 민족적 유산인 것이다. ☼



경임순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일쭉, 한판 놀아보세

-추임새와 흥의 미학

청중들을 웃고 울리던 우리의 소리,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독주자와 노래의 장단을 만들어주는 고수.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청중이었다. 독주자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청중들의 목소리. 바로 그 일쭉, 하는 소리가 우리네 음악을 흥의 지경으로 이끄는 마지막 요소였다.

흥으로 극복한 한의 정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심성이나 미적 감수성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을 떠올린다. 유달리 이민족과 이웃 나라의 침략과 전쟁에 고통 받고, 민족의 분단을 겪은, 험난했던 지난 역사를 감안한다면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음이 있으면 양이 있게 마련이고 그늘이 있으면 햇볕이 있기 마련인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세상만사의 이치이듯이 우리민족이라고 슬픔만으로 살아왔을 리 없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러한 아픔들을 마음속 깊이 삭히고 삭혀 '한'의 정서로 승화시켜온 것도 우리 민족이라면 시공간이 허락하는 갖가지 순간을 노래와 춤, 놀이와 풍류를 통해 '흥(興)'을 잃지 않았고 한을 흥으로 극복해온 것도 우리 민족의 미적·정서적 심성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는 '흥(興)한민국'이란



말을 사용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을 '역동적인 흥의 미학'으로 풀어내었다.

그렇다면 전통음악에서는 어떠한가. 나는 우리민족이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 여겨왔던 만큼 흥과 한은 항상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고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한다. 판소리 하나만 보더라도 비장미와 골계미가 교대하는 가운데 청중들을 울고 웃기고 한다. 우리의 전통극은 서구의 비극, 희극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희비극이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특별히 흥의 정서에 주점을 맞추어 한국전통 음악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단으로 흥을 돋우는 우리 음악

음악의 본질적 요소를 두 가지만 든다면 선율과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민족은 리듬을 가리켜 장단이라 일컬었다. 장단(長短)은 말 그대로 길고 짧음의 음가(音價)를 의미한다. 즉 우리 민족은 음악의 리듬을 '길고 짧음'의 음악과 조합된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여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장단을 타다보면 이러한 길고 짧은 리듬의 조합이야말로 우리에게 음악의 흥취를 돋우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된다. 판소리나 산조처럼 20세기 초엽에 발달한 전문가 음악이 서양의 오페라나 기악 독주 곡처럼 화려한 화성이 뒷받침된 관현악이나 피아노의 반주가 없어도 연주 공간 전체 판에 꽉 찬 기운과 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독주자 옆에서 독주자의 흥을 돋우는 고수의 장단 때문이다. 장구나 북의 역동적인 리듬놀이가 판소리꾼이나 산조연주자의 선율과 대화하거나 빈 음악적 공간을 메워주고, 때로 독주자에게 힘을 북돋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판을 공간적으로 입체화시킬 뿐 아니라 연주자의 흥을 한껏 돋우어 낸다는 것이다.

흥을 돋우는 마무리, 추임새의 미학

그러나 흥을 돋우는 데에는 장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장구나 북을 잡는 고수가 연주자와 쌍방 대화를 하며 흥을 돋우는 마지막 마무리는 '추임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임새란 장

단을 짚는 고수가 창이나 산조의 선율이 전개되는 사이사이에 '좋다', '좋지', '얼씨구', '으이' 등의 감탄사를 넣어주면서 연주자의 흥을 돋우어 주는 말소리를 말한다. 추임새 자체는 음악이라고 할 수 없고 감탄사일 뿐이나 때에 따라서는 피아노나 오케스트라에 버금갈 만큼 추임새의 음악적 역할은 지대하다. 추임새는 음악적 행위에 개입하는 유일한 비음악적 요소이지만 창이나 악기의 선율에서 앞의 구절을 맺고 다음 구절을 유발하는데 큰 음악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추임새는 진양조와 같이 느린 템포에서 자칫 늘어지기 쉬운 부분의 빈 음악적 공간을 적절히 메워주어 연주자의 기운을 북돋우기도 하고 자진모리나 휘모리같이 빠른 장단에서 절정을 향해 달릴 때 음악에서의 화룡정점과 같은 묘미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탄성이 되기도 한다.

고수의 추임새에 이어 전체 음악 판의 흥을 더욱 확장시켜내는 것은 청중의 추임새다.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장을 이야기 할 때 무대와 객석이 열린 판에서 하나가 되는 특징을 많이 거론하게 되는데 청중과 무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청중의 추임새이다. 고수의 추임새 사이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청중의 추임새와 고수와 청중의 대화하는 듯한 추임새로 인하여 한층 고조된 기운과 흥은 연주자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미적 카타르시스이자 청중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피드백(Feedback)이다. 그런 까닭에 전통연주자들의 느끼는 라이브 연주의 묘미와 매력은 바로 고수와 청중이 만들어내는 추임새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우리 음악에 추임새가 있다는 것은 서구의 근대 예술음악과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구의 예술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회의 성패는 청중이 악곡연주를 숨죽여 감상한 뒤 곡이 끝난 마지막 순간에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면서 몇 번의 커튼콜을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전통음악 연주회의 성패는 음악이 전개되는 사이사이의 추임새로 나타나는 청중의 반응에 달려 있다. 추임새는 음악회의 역동적 과정과 전체 판의 흥을 가시화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음악에서 청중의 '음악하기' (musicking)는 바로 추임새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임새는 서양음악에서 박수로 제한되는 청중의 '음악하기'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과정적이며 음악적이고 역동적이다. 추임새로 인해 고조되는 판의 역동성은 결국 연주자와 고수, 청중의 혼연일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그 미적 정서의 본질은 소리꾼(혹은 기악 연주자), 고수, 청중의 삼위일체가 배가시킨 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로 나오는 열쑤, 소리를 기대하며

안타까운 현실은 요사이 국악 연주회에 가보면 고수의 추임새 외에 청중의 추임새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음악을 제대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명장'들이 줄어들면서 추임새마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톤으로 추임새를 넣어야 할지 난감해 한다. 점점 추임새가 없어지다 보니 서양 예술음악을 감상하는 음악회장처럼 숨소리 하나 크게 내릴 수 없는 경직된 분위기가 주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추임새 넣는 일이 이제 '생똥맞은 일'이 될까봐 눈치가 보인다. 그러다 보니 쌍방향의 음악회가 어느새 일방향의 음악회로 바뀌면서 전통 판에서 볼 수 있었던 흥겨움은 어디로 가고 엄숙함, 경건함만 가득하다. 연주회에서 조미료 역할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추임새가 실은 전통적인 미적 정서가 서구의 근대적 예술관에 밀려 소멸되어가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임새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고유한 멋의 하나인 흥의 미학을 잃어가는 것과 상통하며 쌍방향 소통과 공유라고 하는 우리 문화의 미적 본질을 잃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음악회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추임새를 회복해나가는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굳이 일정한 톤과 리듬을 맞추어 추임새를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우리 생활과 심성에 흥을 담고 흥을 실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내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만이 필요할 뿐이다. 추임새가 넘치는 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흥이 넘치고 살맛나는 '흥한민국'을 만들어보자. ☺



이소영 음악평론가

섬에 머무르다

소금 섬에 노을이 진다

신안군 증도



염전을 지나는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소금밭을 비추고 있다.

섬에 머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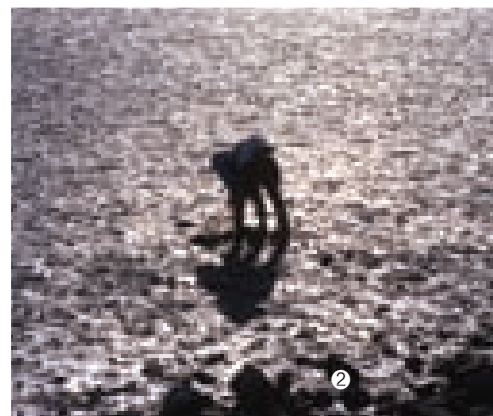


1

별을 밟고 증도로 들어가는 길

사육도 선착장에서 다 저녁 막배를 타고 증도로 간다. 증도(曾島)는 예부터 드는 물이 적어서 사리섬이라 불렸으나 간척사업으로 앞사리 뒷사리를 연결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캄캄한 바다를 건너 증도 버지 포구에 내리자 하늘에는 벌써 별이 총총하다.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와 속을 다 드러낸 검은 갯벌이 에워싼 밤길을 찬찬히 달려 면 소재지가 있는 증동리에 짐을 푼다. 적막한 밤이다. 창문을 열면 곧바로 우전 해수욕장의 검은 바다가 몸을 푸는 곳.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증도는 보물섬으로 통한다. 오래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해저유물 발굴이 바로 이 곳에서 벌어졌다. 당시 해저유물을 발굴했던 곳에는 지금도 기념비가 자리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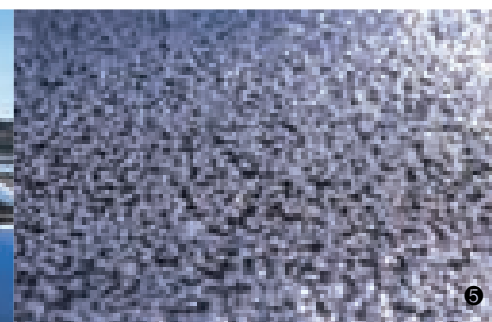
- 1 소금창고 안에 소금이 쌓여가고 있다.
- 2 저녁 무렵 갯벌에서는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
- 3 20년 동안 소금꾼으로 살아온 채판심 씨가 소금을 거두고 있다.
- 4 증도에 자리한 태평염전. 염부들이 소금을 거두고, 나르고 있다.
- 5 소금밭에 활짝 핀 소금꽃.
- 6 증도의 소금창고, 소금창고 사이로 난 길.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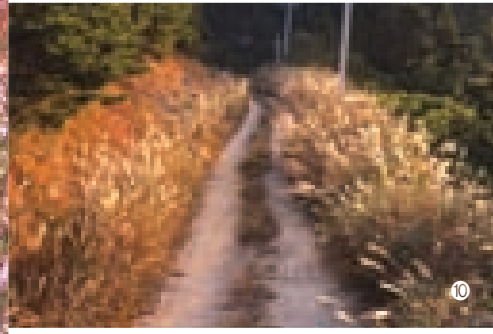
6

있는데, 이 곳은 도덕섬, 대섬, 부남섬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그려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전망대 노릇도 겸하고 있다.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운 검산마을은 증도에서 알아주는 해태양식마을로 통한다. 포구에는 일찌감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김밭작업(밭그물)을 하고 있다. 이 김밭에 씨를 붙여 바다에 넣으면 보름 후부터는 채취가 가능한 김이 된다고 한다. 이웃마을인 오산마을 사람들도 해태그물을 손보느라 여념이 없다.

서해의 소금성 증도

사실 증도는 서해안에서 알아주는 소금 섬으로도 유명하다. 포구가 있는 버지 주변은 온통 소금밭이다. 유명한 태평염전이 바로 이 곳에 자리해 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났는데도 염전에는 소금을 거두는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는 염전을 도급제로 하고 있소. 만개 내면 오천 개씩 갖는 거지. 이때쯤 그래왔소. 여기 염전이 수십 년 되었소. 다른 데는 물소금 찌꺼기라도(간수를 빼내지 않은 소금) 막 실어나가는데, 여기 소금은 안 그러요. 깨끗하고, 꼬실꼬실하고, 물이 질질 흘리지 않고, 쓴물이 쏙 빠지면 나가니까 여 소금을 알아주지라. 여름 소금에 비해 가을 소금은 약간 더 쓴 편이요. 날이 좋으면 시월 말까장만 내게 하고, 11월부터는 안허요. 이것도 이제 끝물이요. 올해는 소금값이 좀 괜찮은디 그동안은 소금값이 었었어라. 내가 20년 동안 이걸 했어도 이게 참 어렵소.” 20년 동안 태평염전에서 소금꾼으로 살아온 채판심 씨(62)의 말이다.

섬에 머무르다



이에서 초분 섬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면사무소에 들러 증도에 아직 초분이 있느냐고 문자 다들 웬 초분이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내가 구분포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에게 초분에 대해 묻자, 그는 산 중턱을 가리켰다. “찌기 초분이 있는갑디여. 한 20년은 되었을 것인디. 근디, 초분은 와 찾아왔소.” 그가 가리킨 산자락을 한참 올라가자 폐기밭 한 구석에 자리한 초분이 보였다. 어느 섬에서 만난 초분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초분이었다. 혹자는 초분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찾아 부러 섬을 찾았느냐고 핀잔할 수도 있겠지만, 초분은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장형 가매장 풍속이고, 그것도 서남해 섬에서만 대를 이어오던 장례문화요, 물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섬문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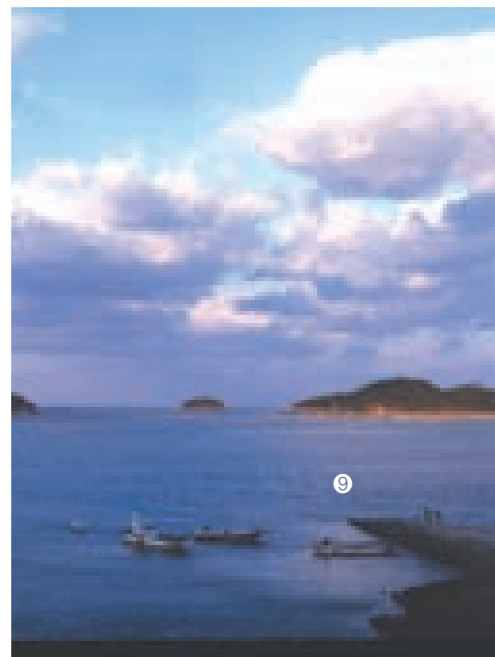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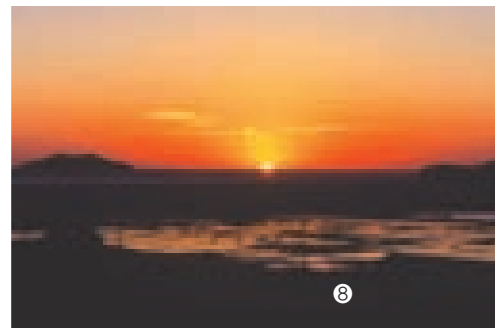
바람결에 갯썩부쟁이 꽃이 흔들리는 섬

초분이 있는 구분포는 돈대봉 아래 있는 듯 없는 듯 자리해 있

태평염전은 앞사리 뒷사리를 메운 버지 방조제 안쪽에서부터 서쪽의 우전 해수욕장 인근까지, 남쪽으로 등선마을에서 북쪽으로는 곡도마을까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아침과 저녁 무렵이 되면 드넓게 펼쳐진 염전에는 소금을 거두는 소금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터러 폐염전이 보이긴 해도 증도의 염전은 대부분 알짜배기 소금을 내는 옹골찬 소금밭이다. 이웃 섬인 입자도나 사옥도, 병풍도 등에도 크고 작은 염전이 흩어져 있으며, 좀더 떨어진 비금도에는 국내 최대의 소금밭이 펼쳐져 있어 증도와 인근의 섬들은 대부분 소금섬인 셈이다.

바람에 실린 사람들, 초분섬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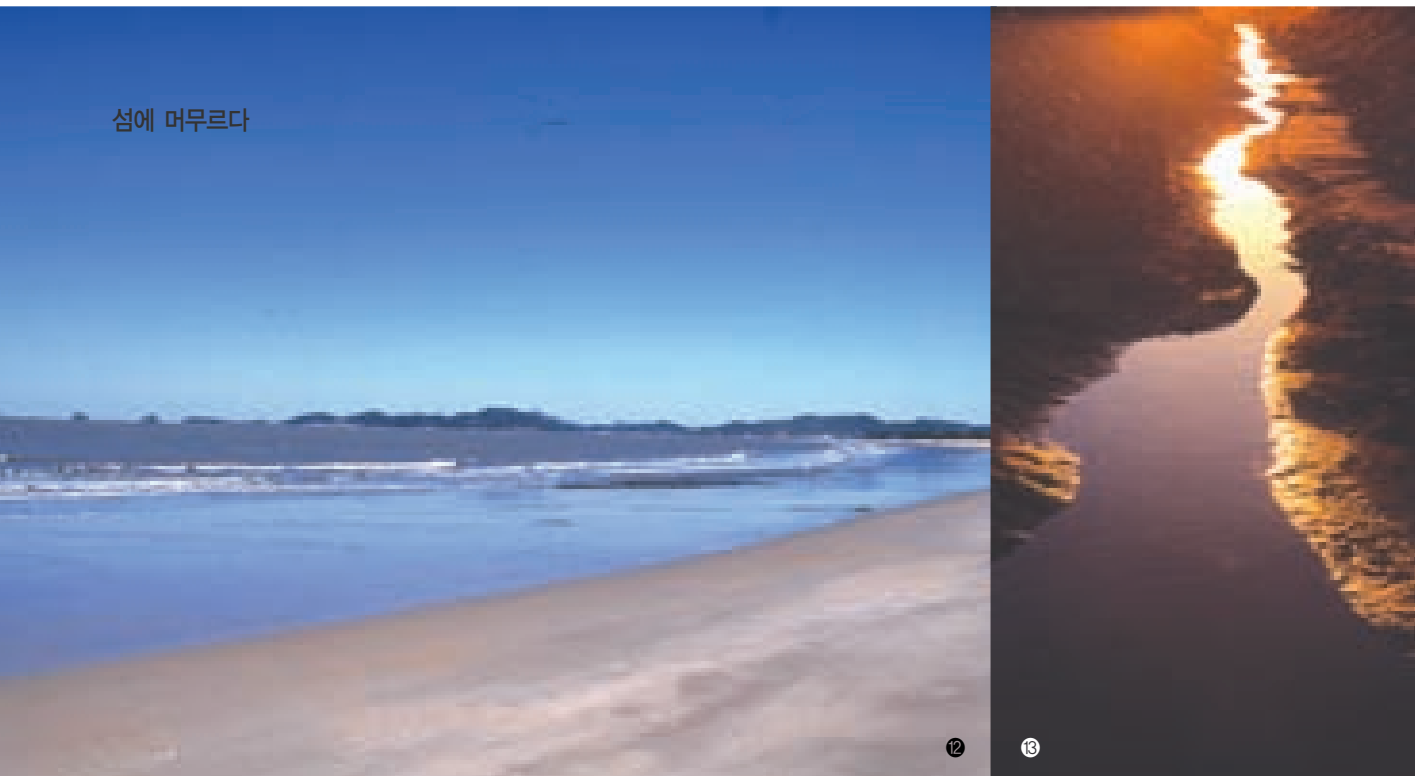
사실 내가 증도를 찾은 것은 과거 증도라는 섬이 민속학자들 사



- ⑦ 심한 해풍이 몰아칠 때마다 폐염전의 갯썩부쟁이밭은 요동치는 꽃의 물결이 된다.
- ⑧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염전은 온통 붉게 물든다.
- ⑨ 증도에서 바라본 아침 포구와 바다.
- ⑩ 구분포로 넘어가는 비포장 산길. 역새와 바람의 길이다.
- ⑪ 섬마을 돌담에 활짝 핀 수세미꽃.

다. 산 너머 염산과 더불어 증도의 가장 외딴 마을에 속한다. 염산과 구분포를 잇는 돈대봉 산길은 승용차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비포장길인데, 늦가을이면 역새꽃이 흐드러져 운치를 더한다. 구분포에서 광암으로 넘어가는 산길에서는 사옥도 쪽으로 펼쳐진 증도의 드넓은 갯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에움진 산길을 넘어가면 이제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연상시키는 염생식물 군락지가 펼쳐진다. 사실 과거에는 이곳이 모두 염전이었으나 지금은 폐염전으로 남은 드넓은 개활지가 온통 붉은 칠면초 무리와 갯썩부쟁이 꽃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해풍이 불어올 때마다 꽃밭에는 바람결을 따라 꽃물결이 일고, 이 모습을 멀리서 보노라면 마치 꽃사태가 난 듯 황홀하다. 누가 일부러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꽃밭을 일구어 놓



12 오전 해수욕장. 13 저녁 노을을 받아 붉고 노랗게 물든 갯벌의 물결.
14 구분포 가는 길에 바라본 역새와 그 너머로 펼쳐진 하늘과 바다.

았다. 여러 섬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드넓은 갯가 꽃밭은 처음이다. 나는 아예 갈 생각도 없고 몇 시간째 갯속부쟁이밭을 돌아다녔다. 뒤늦게 차를 몰아 버지 포구에 이르자 어느덧 막배가 도착해 있다. 배를 타고 나와 사옥도에 이르러 저녁 노을은 온통 붉게 물들었는데, 바닷가 염전에는 아직도 일을 끝내지 않은 소금꾼이 황혼 속에서 때늦은 소금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해가 다 저서 캄캄해질 때까지 소금꾼은 홀로 소금을 거두며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



〈여행정보〉

증도에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무안 나들목으로 나와 24번 국도를 타고 지도읍과 솔섬을 거쳐 사옥도 선착장에서 철부선을 탄다. 사옥도에서는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철부선이 다니며, 뱃시간은 30분 남짓 걸린다. 문의: 증도면사무소 061-271-7619, 증도매표소 275-7685, 현대장 271-7528, 이학장 271-7800, 갯마을식당 271-7528, 고향식당 271-7533



이용한 시인/여행작가

포천문화원과 함께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끝자락을...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 포천

포천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도농복합 도시로 지난 2003년 시로 승격되어 1읍 11면 2동의 행정구역에 인구 15만 7천여 명, 면적은 서울시보다 훨씬 넓은 826km²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군사 요충 지역이었으며 8·15해방 후에는 3·8선이 우리 시를 관통함으로써 5개면이 적의 치하에 있다가 휴전 후에 수복이 된 쓰라린 전쟁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라를 빛내신 위인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며,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순후하여 생거포천(生去抱川)이란 말이 전해올 정도로 살기 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2004년 처음 원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문화원 운영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개의 지방문화원 형편이 비슷하겠습니까만 포천문화원도 연간 총 예산이 1억 5천여만 원에 직원 2명의 적은 규모였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포천문화원 임원을 거치면서 문화원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만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장 취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원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문화학교 개설 운영에 심혈을 경주

가장 첫 번째 시도한 사업이 문화학교의 개설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9월, 5개 과목으로 시작한 문화학교가 개교 3년여 만에 23개 과정에 연간 1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지역 내에서는 비중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의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은 최근 들어 문화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평생교육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데 공급은 과잉이라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관내 대학교에서는 수준 높은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 그리고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를 비롯 여성회관,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관 상호간에 수강생 유치에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이들 교육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급 기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역할분담과 상호보완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여 현재까지 좋은 협조 관계 속에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력한 보람으로 2005년부터는 우리 문화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학 지도와 아울러 재정 지원을 받아 오던 중 금년에는 특별히 한글 교실을 추가로 지원 받아 운영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회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다른 문화원 문화학교 사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연 1회씩 선진 문화원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협력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경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하순에는 “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학교 수료생들에게 작품 전시회와 공연 발표회를 갖게 함으로써 문화원 회원들과 문화학교 수료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해를 결산

하고 문화의 향기에 빠져 보는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선비의 얼”을 계승 선양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대대로 명현, 석학, 충신, 열사,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자손 대대로 그 기풍을 이어주기 위하여 문화유적답사 씨티투어를 매월 1회씩(셋째주 일요일) 실시하는가 하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문화유적답사,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1회씩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競試大會)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 출신 선현들의 고귀한 얼을 선양 계승하기 위하여 이분들의 사상과 업적, 학문 등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하는 학술연구 발표회를 관내 대학교와 협조하여 금년 11월 상순에 개최할 계획이며, 발간 사업으로는 그동안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우리 포천과 관련된 사료들을 발췌하여 발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승정원일기 중 역시 포천과 관계가 있는 부문만을 추려서 발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고장과 선현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축제

청소년과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인 “반월문화제”를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약 4천여 명이 모이는 가운데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의 경진을 실시하는 한편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연 만들기, 윷놀이, 제기차기, 좋은 글 써주기 등 10개의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루를 뜻 깊게 보내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를 낭송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자작시 제외)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규모 대회로는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선현을 추모하는 시제로 전국한시백일장을 매년 1회씩 실시하며, 이와 연계하여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관내 문화유적을 안내함으로써 뿌리 깊은 문화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을 자체인력과 관련 문화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하려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인 듯싶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자체세입증대

위와 같이 포천문화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포천시는 재정규모 3천2백억 원에 재정자립도가 32% 밖에 안되는 열악한 규모입니다만 시에서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는데 힘입어 사업비는 주로 시비(市費) 지원에 의지하는 한편 경상비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 확충을 통한 회비 수입증대, 그리고 관내에 덕망과 재력을 고루 갖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재정적 협찬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7천만 원의 자체세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4억 1천여만 원에 직원수 5명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문화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화원 자체의 재원 조달 능력, 그리고 원장을 비롯한 임원, 사무국의 열정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 마인드와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이 시대의 지역 문화 창달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장의 사명은 실로 막

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갈 문화 마인드가 있는 문화 전문가적 자질과 아울러 이에 못지않은 최고관리자로서의 경영능력 또한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운영도 저비용·고효율의 기업 정신을 접목시킴으로써 문화가족 또는 시민들에게 만족 이상의 감동을 드리는 그런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부분의 변혁에 따라 지역문화의 현장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빨리 착안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문화 수요계층인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더욱 고급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 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비롯, 자료 은행과 씽크탱크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문화원이 더 이상 상징적으로 군림만 하는 엘리트 집단이 아닌, 문화 수요계층인 시민 다수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신선한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렇듯 중차대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어진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는 해가 더욱 아름답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제 인생의 끝자락을 포천문화원과 함께 더욱 아름답고 보람 있게 장식할 것입니다. ☺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이천향교 오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하여

일제가 강탈해간 이천향교 5층 석탑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디에 얼마큼이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재를 알 수 있는 것들보다도 숨어있는 문화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내에 있는 한국문화재가 3만4369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학자들은 대략 3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만 점이나 되는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이 모조리 강탈해 간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선통신사 방문 같은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정식으로 건네졌거나 국가나 개인이 선물로 준 경우도 있겠고, 정당한 댓가를 주고 가져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상당량의 문화재들이 강압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탈취당한 것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2005년 북관대첩비 반환과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유출된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이후 일본의 양심 있는 개인 소장자들이 기증형식으로 소장품들을 한국에 반환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반환교섭에 나서서 이를 되돌려 받은 사례는 손꼽을 정도로 불과하다고 한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1427점의 문화재들을 반환했고, 그것도 정식반환이 아닌 양국간 문화협력을 위한 인도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서였다. 당시의 공화당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식민지 통치시절,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천시 향교 옆에 있었던 이천향교 오층석탑이다. 이 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물산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경북공으로 옮겨갔고, 삼년 뒤인 1918년 총독부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또다시 멀리 동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금은 슈코칸(集古?)이란 사설박물관 뜰 한구석에 처박혀서 외롭게 망향의 설움을 달래고 있다. 향교오층석

탑이 동경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환운동의 필요성이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의미 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한일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이 그것이었는데, 발표내용 중에는 지난 해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에 관한 사례발표가 들어있어 관심을 끌었다. 또 일본인 하야시 교수가 자국 내 약탈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과 반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소개하여 일본 측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화재가 약탈문화재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약탈문화재의 원소재지, 약탈경위, 현 소장자의 소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그 수탈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탈문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제아무리 증거가 뚜렷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글은 이천향교 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앞두고 미리 알아야 할 것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짚어보기 위한 글이다. 반환운동의 성패는 결국 어떻게 상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적절한 협상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둑맞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이니 만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반환요청을 거절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천향교 오충석탑은 비록 부당하게 빼앗겼을망정 원래 소유가 이천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들이 반환요청을 계속하는 한 상대는 문화재 약탈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터이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리라고 믿는다.

문화재 반환운동에 따른 문제점

재일 불법문화재를 보는 한일 두 나라의 시각은 정부나 국민이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는 모두 불법이 아닌 정당한 경위로 일본에 소장된 것'이라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쪽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상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잡아떼는 격이다.

유네스코는 1970년에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가입한 이 국제협약에, 일본은 30년도 더 지난 2003년 12월에 가서야 가입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겉으로는 아닌 체해도 어딘가 뒤통지 못한 속내를 드러낸 셈인데, 30년이나 협약 가입을 미루었던 이유 중에는 재일 한국문화재 문제도 관련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국제협약 가입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한국에 대한 문화재 반환문제는 징병, 징용 같은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영토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려깊지 못했던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분 좋은 핑계거리를 선

물로 얻게 된 반면, 우리 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한 반환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한편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소장가와 학자 등 소수를 제외하면, 일본 국내에 엄청난 양의 한국문화재가 존재하고, 그것들 중 상당수가 약탈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번 <한일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하야시 교수조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불과 2,3년 전 한국인 교수에게서 '일본이 조선의 미술품들을 약탈해 갔다'는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놀라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는 30만 점이 넘는 한국문화재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소장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문화재 뿐만 아닌 문화재의 90%가 개인 수중에 있고, 개인 소장자들은 대부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야시 교수는 미술품 공개로 인해 불이익이 더 많은 일본의 세제를 비롯한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손꼽았다. 또 일본인 특유의 관습을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일본에는 '눈때 손때'를 싫어하는 관습이 있어서 옛날부터 귀중한 물건이 많은 사람의 눈길에 닿거나 손때를 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귀중한 것일수록 감추어 두고 공개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반환요구해야

이천향교 오충석탑은 지금 도쿄(東京都 港?) 오쿠라호텔 곁에 있는 오쿠라슈코칸 정원 한 구석에 놓여 있으며, 근처에는 평양에서 가져간 팔각오충석탑도 함께 있다. 오쿠라호텔은 제국호텔, 뉴오타니호텔과 더불어 소위 어삼가(御三家)라고 해서 일본 최고의 일류호텔로

손꼽는 곳이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을 비롯한 슈코칸의 유물들에 관한 소유는 재단법인 오쿠라문화재단(大倉文化財?)이 갖고 있다.

향교석탑을 되찾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짚어보았듯, 부도덕한 일본 정부나 무기력하기만한 우리 정부쪽은 기대할 것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서도 정부쪽은 가능하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민간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양 국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의식의 차이가 장애물로 가로놓여 있다. 서로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의식의 간격을 좁히고, 진정한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향교석탑의 반환운동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상대가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쪽이 가만히 있으면 향교석탑은 슈코칸의 소유물이지만, 강탈당한 것이니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쿄 한구석에 있다고 해도 우리 것이 된다. 우리 세대가 반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고, 또 다음 세대가 계승한다는 신념으로 반환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을 되찾아 오는 일은 민족의 정기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리고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당하게 반환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불법문화재 환수문제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연합회에 띄우는 편지

수고가 많으세요.

날이 더워서 잠자리에 들기가 힘들었던 때가 바로 며칠 전인데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곧 추석도 오고 여러모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관해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보았고 그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문화원에 있는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세요.

각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에 대해서 말인데요.

문화학교라는 게 사실 문화원의 여러 사업 중 가장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사업 중 하나이지요. 한번 시작하면 1년 단위의 사업이기에, 거의 1년간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월 초 개강을 해서 11월까지의 강좌를 마치면 다음 학기 강좌개설 준비와 강사섭외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의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요. 거의가 국장, 간사 이렇게 직원 2명, 많아야 3명이구요. 이 두 명에서 모든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엔 참 힘들죠. 특히나 신학기 때엔 몰려드는 수강생들로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수강신청서 작성, 수강생 개인정보 DB작업, 또 수강생들의 수강과목 상담, 출석부 작성, 매달 강사료 입금과 확인...그야말로 작은 학원과도 같죠.

저희의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1년에 14~15과목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약 350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하곤 해요. 1학기는 3월부터 6월, 2학기는 7월부터 11월, 그리고 12월의 수료식. 원래 사람심리가 처음 학기 시작일 땐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문화원에서 좀더 문화학교 회원관리를 한다면 2학기 때 확연히 수강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시청 산하 복지관의 경우, 우리 문화원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그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우리 문화원은 회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천시민의 경우로 봐서 지리적이거나 교통이 편한 문화원의 이점을 두고도 더 먼 곳에 있는 복지관을 굳이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이나 소속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복지관은 문화강좌만 전담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고 청소직원도 따로 있고 각 강좌마다 강의실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각 강좌마다 들어가서 출석체크를 하고, 결석이 잦을 경우 일일이

전화를 하여 근황을 물어 보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각 강좌에서는 수업이외에도 자연스레 동아리 모임으로 이어지고 이 모임은 또다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구요.

저도 욕심에 개강 후 처음 몇 주간은 매번 수업시간 들어가 출석체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방문한다거나, 외부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각 강좌 회원관리도 문제지만, 열악한 강의실 환경으로 인해 수강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강의실은 한정되어 있고 수업은 종일 이어져 있고, 잠깐 잠깐 틈나는 사이 강의실 정리도 해주어야 하는데, 전담직원이 없으니 그런 건 정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우리 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부심으로 여기는 게 몇몇 강좌의 수강생들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자체적인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이라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동화 구연, 민요, 가요, 장구를 배우고 익혀서는 인근 고아원, 양로원이나 정신 병원 등을 방문해 그들과 함께 하고, 또 배운 것을 그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배우는 수강생들 입장에서, 뭘가를 배워서 그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줌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진정한 피드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은 이런 활동이 아주 소수의 몇몇 강좌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학교를 좀더 활성화해서 관리를 잘해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봉사활동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의 현실 상 백화점 운영센터나 시청 산하의 복지관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깨끗한 건물과 전용 셔틀버스 운영, 화려한 강사진을 갖추 순 없지만, 문화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존 수강생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화된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해 차별화된 문화학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문화원의 가족으로서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두서없는 글 이해 바랍니다.

찬 기운이 도는 계절이 오는데 모두들 건강하세요.

나날이 발전하는 문화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김영명 김천문화원 간사



영화 <씨인사이드>

鑑賞

21세기의 문화 예술은 영상(映像)이 주도할 것이라 한다.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자주 들르는 편이다. 시대에 낙후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양탈 같아 괴롭기도 하나 부정적으로 자조하고 싶지는 않다.

마침 열성적인 영화 마니아를 만나 동호인으로 발전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 다행이다. 그는 좋은 영화를 많이 보았고, 영상문화에 관한 관련서적도 열심히 읽었으며 폭넓게 연구하여 전문가 수준이라 내게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재미를 심분 활용토록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다.

부산은 전국 제일의 영상문화메카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요트 경기장과 이웃하고 있는 영화관 <시네마테크>는 부산의 영화마니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인기를 모았던 화제작> <농쳐서 안타깝던 영화> <부산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한 달 내내 상영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의 삶> <씨인사이드> <협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오! 마이 보스> <와일드 이노션스> <마이 베스트 프렌드> 등등을 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타인의 삶>과 <씨인사이드>는 대단한 명작이었다.

<씨인사이드>는 제77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과 제61회 베니스 영화제 남우주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매우 시적(詩的)이면서도 의미심장하며, 정치적이면서도 통찰력이 날카로웠고, 문체적 주제(主題)와 세련된 연출력, 눈부신 연기가 영화를 놀랍도록 만들었다. 감독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는 72년생이니, 35세이다. 젊은 천재라 하겠다. 연출 각본 편집 음악 제작까지 총횡무진 활약하여 1인 5역을 빈틈없이 처리한 능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씨 인사이드〉에 대한 시놉시스(synopsis)는 이렇다. 남자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하에르 바르템 역)가 26년 전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가 된다. 그에게 바다라는 존재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로 만든 저주스러운 공간이면서, 영원한 자유를 소망케 하는 꿈이 살아있는 이상향이다. 2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오로지 입으로 펜을 잡고 글을 써왔던 그의 희망은 단 하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안락사를 간절히 원하지만 죽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먹고 죽을 수 있는 약도 없으며, 목을 매거나, 절벽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럴 능력마저 그에게는 없다. 죽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불행한 인생이다. 법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는 신의 뜻에 반한다는 성서의 교리를 내세워 이 가련한 장애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삶의 의무가 아닌 권리이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처절하게 절규하지만 그의 호소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환자의 뉘그러 정도로 취급할 뿐이다.

그 무렵 두 명의 여인이 라몬을 찾아온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수다스럽지만 순수한 여인 〈로사〉는 무턱대고 장애자를 찾아왔지만, 드디어는 친구가 되고, 사랑하게 되어, 급기야 자신을 위해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절친한 사이가 된다. 그런 그녀도 결국에는 라몬에게 설득 당하여 안락사를 도와 주게 되는 시정에 흔히 볼 수 없는 여인이다.

또 한 여인은 자신도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변호사 〈홀리아〉 여사다. 라몬의 안락사 소송을 도와주는 동안 그들은 점점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둘 다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자로 고통 받게 되어 동병상련(同病相憐), 안타까울 뿐이다. 감정마저도 가물거리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거부하는 법률이나 종교적 율법은 가증스럽기조차 한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은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항상 추한 모습으로 일상을 감당하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삶을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안락사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와 법조에 대항한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라몬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영화 스토리는 많은 생각을 동반

케 한다. 안락사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단군 이후로 자살자의 수가 가장 많다. 왜? 고학력 무직자,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실직자, 성적이 오르지 않아 애가 타는 학생, 사랑에 실패한 인생 낙오자, 대통령으로부터 비난받은 사장 등등 삶을 경건하게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자살의 원인이었다. 전신불수 장애자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고 불행하다.

전신불수 장애자를 돌보는 그의 형수는 봉사 정신과 인류애의 전범(典範)을 보여주었다.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환자 보살핌, 그것도 2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정성을 다하는 진지한 태도는 종교적인 경외심을 샘솟게 하였다. 특히 형수는 라몬의 시편들을 사랑하여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홀리아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그녀를 감격케 하였고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어 삶을 흔적을 남기게 한 정성은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세 여인들이 환자에게 보내는 일련의 시퀀스(sequence: 연속된 일련의 화면)를 통하여 죽음과 삶에 대한 애환이 인생철학으로 연계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명나라 말기의 小品家요, 『湖心亭小記』의 저자인 장대(張岱)의 글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느끼기도 하였다.

人無癖 不可與交 以其無深情也(인무벽 불가여교 이기무심정야 *癖:벽 habit 狂 煞)

人無庇 不可與交 以其無真氣也(인무비 불가여교 이기무진기야 *庇:비 handicap 障礙)

사람에게 벽(주벽 방랑벽 등)이 없으면 더불어 사귄다 못하다 왜냐하면 깊은 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장애가 없으면 이 또한 사귄다 못하다. 진실한 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자에 대한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중증환자가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할 때 이를 허용하는 안락사인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도 〈존엄한 죽음법〉이 법률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여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이고,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식마저 없는 식물인간에게도 인공호흡과 영양공급을 계속하게 하는 현재의 의료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 조항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자식을 안락사 시킨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안명수 수필가 / 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천손민족 天孫民族 혼불겨레 일을 되살립시다

영키고, 뒤틀어진 역사 歷史, 문화 文化 를 바로 봅시다.
홍익인간 弘益人間 정신 精神 은 동방 東方 의 등불입니다.

제4회

황하(黃河)로 날아간 삼족오(三足鳥)

1. 백두산에서 꽃 피운 배달 문화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동서로 가로 누비던 혼불겨레가 따뜻하고 밝은 땅을 찾아 동쪽으로 옮겨와 자리 잡은 곳은 백두산입니다. 오랜 세월 겨레가 지나온 곳곳에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있지만 비옥한 만주 벌판에서 남방 농경민족과 만나 배달 문화를 꽃 피운 곳은 홍안령 기슭 홍산(紅山)이었습니다. 밝은 땅>밝은 다라>배달(倍達)로 겨레의 이름이 바뀌듯, 밝은 다라>밝은 산>백두산(白頭山)이 됐고, 밝은 산>붉은 산>을 홍산(紅山)이라 불렀습니다. 홍산(紅山) 이웃에는 같은 이름의 붉은 산>적봉(赤峰)도 있습니다.

이곳 발해만 북쪽, 홍산=백두산이 우리 혼불겨레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배달문화를 펼친 곳입니다.

중국정부는 1956년~2006년, 50년 동안 이곳 홍산 유적에서 10차 5개년 계획으로 유물 발굴조사를 벌이고 동이족의 특징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와 <비파모양구리칼>이 쏟아져 나오자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역사를 훑치는 동북공정을 서두른 것입니다. 일제도 일찍이 황국사관을 고착시키기 위해 이곳 홍산 유적 발굴에 손을 댔다가 워낙 방대한 배달문화 흔적을 바꿔치기 어렵다고 여기고 덮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2. 신시(神市)에 베풀어진 삼시랑 문화

하늘 뜻을 따라 동방으로 옮겨 온 천손 민족, 혼불 백두산 신단수(神檀樹) 밑에 신시(神市)를 베풀었습니다. 신단수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 뜻을 헤아리는 통로이고, 신시는 하늘과 땅,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삼시랑 문화 마당입니다.

삼시랑 문화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다는 만신(萬神) 미신(迷信)과는 다릅니다. 창조주가 베

풀어준 삶의 터전에서 천신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삼시랑 문화를 이룩한 배달겨레는 홍익인간 정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를 거룩한 숫자로 여기는 혼불겨레의 삼시랑 문화는 모든 사유 체계를 삼재로 풀어나가는 <3수(數) 분화(分化) 수리(數理) 체계(體系)>를 발전시켰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된 만물이 처음 1로 시작하여 3으로 분화하고, 3이 복제되어 9로 발전하면, 9가 다시 복제되어 81, 우주수(宇宙數)가 된다는 수리 체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언어 속에는 <삼시세판><세마치 장단> 등 3수(數) 어휘가 많고, 9를 완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3. 삼원태극(三元太極)과 삼족오(三足鳥)

삼시랑 문화에서 발전한 <3수(數) 분화(分化) 수리(數理) 체계(體系)>는 민족 비서(秘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81글자로 정리된 천부경(天符經)은 '하나를 시작이지만 시작이 없고, 하나에서 셋이 나뉘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 천(天)을 일(一), 지(地)를 이(二), 인(人)을 삼(三)으로 해서 삼극(三極)을 삼고, 3의 복제 수인 9까지의 숫자로 우주 변화를 해석했습니다.

신시를 베풀 때부터 전해 온다는 또 다른 민족 비서(秘書) 삼일신고(三一神誥)는 '하나를 셋이요, 셋은 하나다(卽一卽三卽一)' 라고 해서 삼위일체 신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온다(執一含三 會三歸一)' 는 <3수(數) 분화 수리 체계>의 사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삼원태극이고, 상징적 무늬로 표현된 것이 삼족오입니다.

고구려 왕관의 태양 무늬 속에 보이는 삼족오가 있고, 신라 미추왕릉에서 발굴된 장식보검에도 삼태극과 삼족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 사찰의 단청이나 조선 왕궁 계단석 조각에서도 삼태극을 볼 수 있으며 단오선을 진상했던 전주에서는 지금도 태극선을 삼태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음양태극(陰陽太極)

북방 유목민족의 하늘 사상에서 비롯된 삼태극과 삼족오는 홍산 지역의 배달문화가 황하 유역의 양소문화로 파급됐습니다. 은(殷)나라, 주(周)나라 시기 금석문으로 남아 있는 파문(巴紋)과 와문(渦紋)이 삼태극의 변형입니다. 춘추시대에도 삼태극과 삼족오 문양의 유물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은 배달문화 즉 삼시랑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史記) 율서(律書)와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도 3수 분화 수리 체계가 기록돼 있습니다. 12간지(干支) 숫자풀이에서 '본래 수는 황종의 수, 1에서 시작하여 3이 되고, 3에 세 번 쌓아 12진의 수를 지나면 17

만 7천 일백 47이 된다.' 이 기록을 주석한 삼국시대(三國時代) 맹강(孟康)은 '태극원기는 셋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하나인 것이다. 이것이 1수가 변하여 3이 된다는 말이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북방 유목민족의 하늘 사상 체계인 삼재론(三才論)이 초기 지나(支那) 지방 사유 체계를 지배했으나 황하 유역의 농경문화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물질 구성 원리에 따라 음양론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삼재론과 음양론(陰陽論)이 혼재, 습합하여 오행론(五行論)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5. 역수입된 태극기(太極旗)

음양론과 오행론이 발전했어도 태극 관념은 적어도 송(宋)나라 때까지 삼원태극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알려지고, 주희의 성리학이 유가의 우주관으로 확립되면서 음양태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음양태극이 역수입되어 삼원태극과 함께 혼용되었습니다. 조선조 들어 승유정책을 펴면서 삼원태극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산 유적에서 발전한 배달 문화, 삼시랑 문화가 삼원태극으로 황하 유역으로 들어갈 때 민족의 심볼 삼족오도 함께 날아 들어갔으나 역수입된 음양론으로 주작(朱雀)이 됐고, 뒤에는 원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삼족오는 지금도 살아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공동 주최국인 일본의 심볼로 날아올랐습니다.

6. <붉은 악마(惡魔)>보다는 <치우기(蚩尤旗)>라 부름시다.

월드컵 축구로 다시 살아난 배달문화로는 <붉은 악마>를 내세웁니다만 이 또한 황하 유역에 들어갔다 변질된 대표적인 배달문화입니다. 후자는 <붉은 악마>를 우리 조상 치우(蚩尤)가 신바람 타고 살아난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치우는 배달시대 14대 환웅, 자오지(慈烏支) 천왕입니다. 중국의 시조 황제와 72번 싸운 전쟁 영웅입니다. 사기(史記)는 동이 천자를 꺾기 위해 갖은 험담을 기록해 놓았고, 상(商), 주(周) 시대를 거치면서 두려움의 존재 치우를 도철로 변질시켰고, 사대주의 지식인들이 도깨비로 역수입하고, 오늘날 <붉은 악마>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나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을 <치우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조금만 바로 보고 되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붉은 악마>보다는 <치우기>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



서승 전주문화원장

거센 걸음으로 도약하는 문화원 - 성남문화원을 찾아서

청년의 때를 맞은 성남문화원

성남은 동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계에 있고 북으로부터 광주산맥의 흐름에 있다. 서쪽은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와 경계가 된다. 성남은 애초에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남한산성 아래 탄천벌에 세워진 이 도시에 올해로 개원 29년째를 맞는 성





① 성남문화원 한충섭 원장
② 장구로 함께 흥의 돋우는 회원들
③ 문인화반 수업을 듣고 있는 회원들

남문화원을 찾았다. 젊음의 열기로 긴 세월을 달려 이제 이립(而立)의 나이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문화원. 1978년 개원 이래 빠른 행보로 지금껏 달려온 성남문화원은 그 규모부터가 남달랐다. 교육청 건물에 자리 잡은 문화원 원사는 찾기에 쉬워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았다.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으며

1년에만도 정기적으로 서른 가지 정도의 행사를 치러낸다는 성남문화원이다. 늘 이렇게 바쁜 상황이니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았다가는 사소한 실수가 행사에 큰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에는 숨은 비결이 있었다.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전체 회의를 합니다. 주간회의인 거죠. 그리고 다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서로가 맡은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서로간의 정보 공유에도 효과적이죠.”

한충섭 원장이 밝히는 비결은 바로 이랬다. 더욱이 이런 회의가 자신이 놓쳤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서로 조언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며 꼬박꼬박 회의



를 거르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 자신이 워낙 일복(?)이 많아 이렇게 시간별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서라고. 이런 회의는 큰 행사가 있는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시간을 낸다고 한다.

각 지방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남은 다른 도시와 달리 정부의 주도 하에 세워진 계획도시이니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가 짧다고 생각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성남만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충섭 원장은 사람이 드나들어 그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살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원장이 문화원 운영을 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고 한다.

“문화원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이 전부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발굴되어 있는 문화나 향토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에 무관심했던 탓에 으레 어떤 문화도 없겠거니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남지역에도 우리 지역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나라 역사의 큰 줄기가 바로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원장에게는 이렇듯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바로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한원장의 문화발굴사업으로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것은 물론, 각종 연례행사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둔촌 시조시 · 한시 백일장과 송산 어린이 문학상, 연성군 삼죽오 축전 등이 그것이다.

지역과 함께 커가는 문화원

성남문화원도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성남문화학교 및 성남문화의 집에서 각종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은 대체로 20명에서 30명 안팎이다. 가야금, 한국무용 동양화 등을 비롯한 전통문화 관련 강좌와 노래교실, 사진교실 등 다채롭게 꾸러나가



① 2007년 둔촌동 백일장
② 한, 중 둔촌 백일장
③ 3.1만세운동 기념식
④ 제 62주년 광복절 경축식

문화원 탐방

고 있다. 1년에 정기적으로 갖는 행사인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식,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해돋이 행사 등 그 행사만도 서른 가지가 넘어선다. 올해에는 중국에서 둔촌백일장을 열어 중국과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하였다.

성남문화원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앞장 선 덕분이랄까. 지역 문화발굴에 앞장을 서니 그에 따른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성남지역의 문중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니 아무래도 재정적인 도움이 따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문화원에서 지역 문화에 관심을 쏟고 키워 나가니 지역의 문화 또한 문화원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성남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와 성남문화학교, 성남문화의 집, 서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성남 문화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현문화의 집 위탁은 성남에서 분리된 분당의 시설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역을 아우르는 데에 힘쓸 것을 다짐

더욱이 이번 판교신도시의 마을 이름 및 시설 도로 이름 짓기에 팔을 걷어 부친 것도 이런 지역간 융합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성남과 분당 판교는 아무래도 외지인이 많이 유입되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주민간의 결속력이 여타의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급조한 도시, 역사 없는 도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바탕에 문화와 역사를 심는 일환으로 판교신도시의 이름을 짓기에 이르는 것이다. 성남 분당간의 교류는 물론, 그 역사적 바탕을 채우는 일이기도 했다.

- ① 도서를 보존하는 수장고
- ② 컴퓨터 강좌가 열리는 부스



- ① 직접 그려본 동양화를 살펴보는 회원
- ② 비디오를 관람 하거나 노래교실 등이 열리는 문화관람실
- ③ 1층에 배치된 비디오와 DVD
- ④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 붙이기 책자

이렇듯 문화원은 그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며 타 지역과의 연계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성남 문화원. 이제 막 청년의 때를 벗어나 앞으로 달릴 길만 남았다며 기대로 가득한 이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성남문화원, 앞으로의 거센 행보를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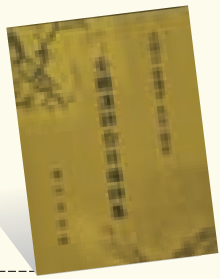
책갈피

● 울산동구 지명과 문화이야기



● 울산 동구문화원 발행
땅이름은 언어영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그 고장의 무형문화재이다. 땅이름에는 그 지방마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옛 사람들의 염원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아득한 세월 속에 존재했던 사건 사고의 유흔을 비롯해서 민속과 신앙, 자연과 지리, 언어의 변천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고유한 문화의 유흔들이 담겨져 있다고 이 책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명과 동구의 변천 등 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울산 동구의 동별 지명유래 및 인접 동의 지명유래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 全國漢詩白日場詩集



● 포천문화원 발행
포천 출신의 조선 초기 사육신의 한 분인 유응부(兪應孚)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자 '충목공 유응부 선생 추모'를 시제로 개최된 전국한시백일장의 작품과 해설을 담아 장원과 차상, 차하 작품을 비롯해서 가작과 선외, 찬조시, 축시에 이르기까지 412수를 수록해 놓았다.

● 진악산 기슭에 꽃피운 천년의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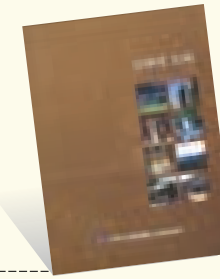
● 금산문화원 발행
'비단고을 유림의 고향 초현리'라는 부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산군 남일면의 소재지인 초현리는 고을의 진산으로 숭배를 받는 진악산 기슭에 좌정한 마을이다. 이 책에서는 초현리의 역사와 공동체문화, 민속 문화, 문화유산과 인물을 중심으로 지명에 얽힌 유래와 중요성씨의 초현리 이주와 번성, 문중조직 및 사회조직과 계, 수리시설, 마을신앙과 민간의학, 세시풍속과 구전설화, 문화유적과 유물을 비롯해서 초현리를 빛낸 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사진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 性理學의 本鄉 龜尾의 歷史와 人物



● 구미문화원 발행
구미지역은 아은 길재 선생을 배향한 금오서원을 비롯해서 15개 서원이 1567년부터 1843년까지 설립되었을 정도로 이 책 제목과 같이 성리학의 본향이다. 고대사회로부터 조선 후기를 거쳐 근현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구미의 도약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미의 제례문화 등을 상권에 담고 있으며 하권에는 연대별로 명인목록과 성씨별 목록 및 사적, 시대별 문무요인록, 고위관직, 공신책록, 연대별 성씨별 충의목록, 연대별 성씨별 문·무과 및 생진과 등제목록, 연대별 효행인물록 및 열부목록 등을 상세히 수록해 놓았다.

● 宜寧의 名所



● 의령문화원 발행
의령의 유적과 유물 및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책자로서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延嘉七年銘金銅佛立像)과 수레바퀴토기 등 두 점의 국보와 보천사지삼층석탑 등 3점의 보물 소개를 비롯해서 임진왜란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홍의장군 관재우 장군을 모시고 있는 충익사와 정암과 정암진, 자굴산, 탐바위, 봉황대와 칠비계곡, 국사봉,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와 호암 이병철 선생 생가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 이천의 옛이야기



● 이천문화원 발행
여느 고장과 마찬가지로 이천지방에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옛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산과 골짜기, 고개·바위·언덕·들판·시냇물·나무와 같은 자연물이나, 도깨비·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천문화원이 펴낸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전설편'과 강남대 조사단이 8년간에 걸쳐 조사한 '이천시 읍면별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엮었다. 약 50개에 달하는 옛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460여개에 달하는 '이천의 옛이야기' 자료목록도 함께 실고 있다.

책갈피

• 엽기조선풍속사



재미있는 상황설정과 유타 있는 지문으로 조선시대를 재현해낸 책. 대중의 눈높이와 감각에 맞는 글쓰기로 역사에 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일식 때마다 태양과 맞장 뜨던 조선 왕, 우리 고유의 원초적 화장실 뒤처리 기술 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가 펼쳐진다. 2006년 엽기 조선왕조실록의 저자인 이성주가 또 한 번 입심을 자랑한다. 이성주 지음, 추수밭, 11,000원.

• 우리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에 의해 창조되고 향유되어 온 민족 문화유산들이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약탈되고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국보와 보물들이 우리에게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까지 어떤 우여곡절과 사연을 겪어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고증적 접근이 가능했던 문화재들을 고서화, 도자기, 불상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각 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감상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있는 문화재들은 별도의 글로 묶었으며,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식들을 함께 담았다. 또한 유물의 발굴 내력과 소장자들이 바뀐 경위는 증언을 토대로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하여 재미를 더했다. 고재희 지음, 문예마당, 16,800원.

• 조선여인잔혹사



조선시대에 있었던 실존인물이나 문헌에 남아 있는 여인들을 찾아 그녀들의 삶을 추적하고 복원한 대중역사서이다. 조선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여인들의 죽음과 연관된 18가지 사건의 정황을 현장감 있게 서술하였다. 왕조 중심, 남성 중심의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복원하였다. 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과학 수사와 법의학의 세계를 보여주며, 해당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책이다. 이수광 지음, 현문미디어, 12,000원.

• 궁녀



대장금, 장녹수, 김개시, 삼천궁녀...왕의 여자들의 삶과 사랑을 철저한 고증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재현해낸다. 중국과 일본의 조선 출신 궁녀는 누구였는가? 궁녀가 연루된 역모 사건은? 대대로 궁녀를 배출한 가문은? 궁녀들간의 동성애는 이루어졌는가? 상식의 오류를 밝히는 논제에서부터 가장 비밀스런 부분까지 조선 시대 궁녀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독자에게 지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명호 지음, 사공사, 12,000원.

• 음식잡학사전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 음식에 관한 책이지만 그 흔한 요리법도, 탐스러운 음식 사진도 없다. 대신에 역사, 인물, 유래, 재미있는 자투리 상식까지 음식의 모든 것을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다. 수많은 상식과 지식 중에서 특히 음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그야말로 '음식잡학사전'이다. 이 책은 총 70여 개의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들과 관련된 문화사를 함께 전해준다. 테마별로 음식에 얽힌 유래를 소개하고 있어, 음식 한 그릇에 담긴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윤덕노 지음, 북로드, 10,000원.

• 지도 박물관



이 책에서는 지도가 포착한 인류 문명과 역사 속의 결정적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지도들이 지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도학의 발전 과정은 물론 인류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지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지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였다. 고대인들이 만든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예술성 높은 지도에서, 지도 장인들이 그린 뛰어난 색감과 아름다움을 지닌 걸작들까지, 지도를 통해 당대의 미적 질서가 응축된 예술의 세계를 전해준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앤디 워홀 등 유명 화가들이 그린 지도들도 만나볼 수 있다. 존 클라크 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000원.

책갈피

● 우리말 뉘앙스 사전



〈우리말 뉘앙스 사전〉은 뜻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우리말의 뉘앙스를 정리한 사전이다. 유래를 통해 뜻을 비슷해도 쓰임은 다른 우리말 뉘앙스의 미묘한 말뜻을 짚 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쓰고 있는 말들, 쓸 때마다 헛갈리는 단어들은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미묘한 말뜻이 숨겨져 있다. 신화나 전설, 특별한 사건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각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쓰임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단어를 관찰하고 각 단어의 올바른 쓰임을 알려주어 말솜씨와 글쓰기 실력도 향상시켜준다. 박영수 지음. 북로드. 15,000원

● 살아있는 우리 신화



입에서 입으로 근근이 전해 내려온 우리 신화의 주인공들인 78명의 신과 그들이 펼쳐내는 25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자신을 버린 부모를 구하려 저승 세계로 떠나는 바리, 작은 가슴에 우주를 품어 안는 들판의 딸 오놀이, 사랑을 찾아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자창비, 거친 바다든 광활한 대륙이든 거침없는 영웅 궤네깃도, 목이 잘린 채로 눈 부릅뜨고 불의에 항변하는 양이목사까지, 그리스·로마 신화나 다른 어느 신화와도 다른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거칠고 험한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져 시련을 견뎌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저자의 구수한 입담과 해설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난다. 신동훈 지음. 한겨레출판사. 13,000원

2007 지역문화경영과정 최우수 수료자 선정 소감

올해 지역문화경영과정이 1, 2차로 나누어 대전,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초급 총 5일(32시간) 중급 6일(38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문화원 가족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 수료자로 평가된 두 사람에게 본 교육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지역문화의 자양분 '지역문화경영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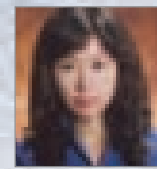
전에 다니던 방송국에서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이제 1년. 방송국에 근무할 때는 직무교육부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까지 계속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스쳐간 다양한 교육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직장에서 만들어주는 교육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차에 지난해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기획해 마련한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반, 중급반을 교육받으면서 내 머리를 녹슬지 않게 하기위해 연합회에서 신경써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특히 '지역문화경영과정'은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지방문화원 실무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지역문화경영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 인력이 배출되어 풀뿌리 문화예술의 기반이 비옥하게 형성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지역 문화 희망의 뿌리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의 〈고향〉 중에서-

이번 지역문화경영과정을 수료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두 글자는 '희망'이었다. 여타의 다른 문화원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밤을 낮 삼아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경영과정과 같은 좋은 기회가 있어도 마음은 굴뚝같지만 쉬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백번 동감하고 있다. 나 또한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서 문화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중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으니...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에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며 그 발견된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원 종사자분들이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나에게 지역문화경영과정은 지역문화의 창조적 빛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계기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운 기대들을 지역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며 희망을 갖는 사람으로 지역의 꿈을 이뤄가겠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경영과정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최혜은 인천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가을이 오는 길, 서울성곽을 거닐다

- 2007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반 프로그램

지난 8월 30일 남산 팔각정에서 장충단 공원 구간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반 인원과 연합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지방문화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성곽의 역사적 가치와 가을이 오는 길목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행사는 오후 2시, 남산 팔각정에서 모여 서울 성곽을 돌며 4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제 22회 전국 향토문화논문 공모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매년 전국향토문화 논문 공모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 부탁드립니다.

-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응모자격 : 향토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 단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 및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겸임, 객원, 외래교수 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음.
- 공모 부문
가. 향토문화 논문 부문, 나. 향토문화 자료 부문
- 연구 분야
 - 공통 : 사료(문서, 족보, 일기 등), 민속(설화 · 신앙 · 민구 · 놀이 · 지명유래 등), 고고미술사(묘비, 회화, 발굴유물, 성(성곽) 등), 생애사(특이한 삶을 살아온 인물, 명인 · 명장 등의 삶), 재래 시장, 기타(향토사 전반)
 - 향토문화 자료 부문 : 사진자료(향토사 관련 다양한 사진 자료, 지역의 풍경(4계) 등 하나의 소재를 일정한 주제로 보여주는 사진 자료집), 물질문화(제기, 복식, 민구 등)
- 수상 및 상금
 - 공통(대상 400만원)
 - 향토문화 논문 부문(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2편), 장려상 100만원(3편))
 - 향토문화 자료 부문(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100만원(2편))
- 응모 기간 및 합격자 발표
 - 기간 : 2007. 6. 1-10. 31(마감일 소인 유효)
 - 발표 : 2007. 11. 25.(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발표)
- 원고 분량 및 작성법
 - 분량
논문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자료 : A4 10장 이상(사진 등의 다양한 자료를 포함)
- 제출 서류 및 접수
 - 제출 서류 : 디스켓 1부(원고 및 국문초록), 출력물 3부(원고 및 국문초록), 이력서(사진 부착) 1부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향토문화공모 담당자 (앞)
 - 문 의 : 서종원(계장, 02-704-2312)

「우리문화 소식」

2007인천지방문화원 임직원 연수 -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지회장 허문명)는 9월 13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청풍리조트 힐호텔에서 인천지역 8개 문화원장과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07인천지방문화원 임직원 연수'를 가졌다.

평소 문화원 업무수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성을 버리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정신자세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번 연수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의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와 지방문화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권용철 과장의 '문화예술 정책방향'과 세무실무 등에 대한 강의에 이어 3개조로 편성된 분임토의 및 평가를 가졌다.

다음날인 9월 14일은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온달성·청풍문화단지 등에 대한 문화체험시간을 끝으로 이틀간의 연수를 마쳤다.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남선우)는 9월 1일부터 2일간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 중앙무대에서 안산문화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도와 안산시 후원으로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를 가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과 양태홍 경기도의회의장, 권



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주원 안산시장, 김석훈 안산시의회회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도내 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남선우 경기도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21세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과 현대적 재창조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우리의 향토예술이 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민속예술의 전승과 현대적 재창조는 우리문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독창적인 문화컨텐츠를 만들어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임을 역설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규모의 민속예술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를 전승하는 경기도의 면모를 보여주자고 제의함으로써 동석한 도내 문화원장을 비롯한 민속예술 관계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산 둔배미배치기소리, 용인 두레싸움, 평택 포송두레소리, 하남 초동목도싸움, 김포 지경단이, 고양 호상상여, 회방아소리 등 14개 팀이, 두 번째 날은 안양 웃다리날피눔악, 과천 나무꾼놀이, 이천 거북놀이, 안성 극적루와 전통민속가무악, 의정부 버들개농요 등 14개 팀 등 총 2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자기 고장의 풍물과 농악 등 다채로운 민속공연을 펼친 결과 과천 나무꾼놀이(과천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포송두레소리(평택시)가 우수상을, 오리뜰농악(성남시)과 화성재인청농악(수원시)이 각각 공로상을, 그리고 동두내 두레소리(동두천시)와 석천농기고두마리(부천시), 포천 틀뚝이동해세우기(포천시) 등이 장려상을, 이방리농요(광명시)와 외미농악(오산시), 광지원농악(광주시)이 각각 노력상을 받았다.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

웃다리 문화촌 sbs 금요컬처클럽 방영, 자라섬국제제페스티벌 09월12~16일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은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폐교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각 지역에 74개 (부산 1개소, 인천 3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광주 1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11개소, 충북 6개소, 충남 3개소, 전북 9개소, 전남 12개소, 경북 3개소, 경남 5개소, 제주 5개소)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경기도 평택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웃다리 문화촌'은 2006년도에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솟대만들기 교실, 나무액자만들기교실, 가구만들기교실 등 문화예술강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으며, 지난 9월 7일(금)에는 SBS '금요컬처클럽'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04년도에 조성된 경기도 가평시에 조성된 가평음악문화관은 9월 12일(수)~9월 16일(일)까지 자라섬국제제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세계 최고의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은 9월 19일(수)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역유휴공간 활성화방안-생활친화적문화공간 운영사례중심'이란 주제로 <

「원장동정」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오전 10시에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와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진도문화원 땡땡땡실버문화학교 공예교실 개관

진도문화원은 지난 9월 21일자로 자체사업비 5백만 원을 들여 진도군 입회면에 실버문화학교 체협학습실겸 공예품전시실을 개관했다.

또한 실버공예반에서는 사업비 1천만 원을 들여 주식회사 한국모형에 역세이영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실버문화학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작년에 설립된 바 있는 문화원 부설 실버민속예술단은 문화학교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여소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집에서 망인의 상여소리를 신청해 오면 봉사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문 직업예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와 숙식 정도만 제공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극락왕생을 빌어드리고 있다.

서울 강동문화원장 이원달 씨



강동문화원은 지난 7월 25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원달(李元達 71세)씨를 만장일치로 제3대 원장에 추대하였다.

8월 2일 오후 4시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신동욱 강동구청장과 윤규진 강동구의회의장,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이원장은 '사회발전은 문화발전으로 귀착된다고 전제하면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정성을 쏟아 나갈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각계각층의 문화역량을 결집시켜 강동문화원이 지역문화 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경상북도 문화예술담당을 위시해서 서울시장 비서실장, 용산·강동·중랑구부구청장과 임명직 광진구청장 등 공직생활로 정년퇴임한 이원장은 1996년부터 7회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서양화가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의왕문화원장 이중훈 씨



의왕문화원은 지난 8월 22일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중훈(李鍾勳 62)씨를 만장일치로 제3대 원장에 추대하였다.

9월 28일 오전 11시 의왕문화

원에서 이형구 의왕시장과 박석근 의왕시의회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남선우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도내 다수 문화원장 및 경기도와 의왕시의원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왕문화원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와 성결대 기독교교육학과를 거쳐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행정학 석사이기도 한 이원장은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화성 창문·의왕 왕곡·오전초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그동안 의왕문화원설립추진위원과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문화원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강릉문화원장 염도호 씨



강릉문화원은 지난 6월 16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가 경선한 끝에 출석회원의 85%를 득표한 염도호(廉燾鎬 66)씨가 제12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8월 28일 오전 11시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문화원 이사를 비롯한 회원들과 지역문화단체 임원 및 문화예술 관련 임원, 예능보유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강릉상고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회개발대학원을 수료한 신임 염원장은 강원도의회 의원과 강릉문화원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강릉단오제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원도민일보사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진도문화원장 김정호씨 재선임



진도문화원은 지난 7월 15일 제15대 원장선거를 위한 진도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공고안을 확정하는데 이어 다음 날 이를 공고하고 7월 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김정호

(金井昊 69) 현 원장이 단독후보로 등록하여 진도문화원정관에 따라 무투표로 원장당선이 확정되었다.

9월 7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원 2층 강당에서 진도군 부군수를 위시한 내외 귀빈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임기 4년 동안은 원사를 읍내 중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심권의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학점은행제 예술대학 설립, 역사기록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 면지를 집필하겠다'고 포부의 일단을 밝혔다.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원장은 일찍이 조선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전남일보 사회부차장과 문화부장, 광주일보 논설위원, 무등일보 편집국장 등 언론계에 종사해 왔으며 국악과 민속, 문화재, 향토사 등에도 많은 활동과 함께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김태훈 의정부문화원장 별세

지난 8월 11일 의정부문화원 김태훈(金泰勳 71) 원장이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 김태훈 원장은 1936년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 양주초등학교와 서울 휘문중·고를 거쳐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중고교 교사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연천, 평택, 동두천 교육청에서 장학사 및 장학관을 지낸 후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평생을 교육사업에 이바지해 왔다. 그리고 2003년부터 의정부문화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해 왔다.

고인의 영결식은 8월 13일 오후 1시 의정부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임명자 여사와 1남 2녀가 있다.

박영출 초대 울산문화원장 별세

지난 9월 12일 초대 울산문화원장 박영출(朴榮出 89) 선생이 노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 박영출 원장은 1919년 울산에서 출생,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1964년부터 1998년까지 34년간 울산문화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울산문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서왔다.

고인의 영결식은 9월 14일 오전 9시 울산시 소재 동강병원 장례식장에서 울산문화예술인들의 뜻을 모아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장례추진위원장:김 철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시지회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장지인 옥동공원묘지 선영으로 향하는 도중에 울산 남구문화원 앞에서 운구행렬을 잠시 멈추고 노제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3남 1녀를 비롯해서 많은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문화야 놀자! 실버가 간다! <1·3세대가 만나는 문화디딤돌>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토) ~ 22일(월)
- 장 소 : 일산 호수공원 내 꽃전시장
※ 지난해 2006 실버문화사랑축제도 동일 장소에서 개최함
- 참가대상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100개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참가자 10,000여명
- 주 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 후 원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전시 프로그램
- 제작형 프로그램의 다양한 작품 전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진 전시 등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체험 프로그램
- 전통탈, 도예, 목공예, 솟대, 한지공예, 염색체험, 손뜨개, 나전칠기, 짚풀공예 등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공연 프로그램
- 평창아라리, 시조창, 섬소리 민요합창, 창작뮤지컬, 그림자 인형극, 동해 어부소리 등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강연 프로그램
- 문화유산해설, 보석해설, 숲해설, 풍수지리, 한문 등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마당놀이 프로그램
- 전통혼례, 마당극, 전통놀이, 풍물, 농악, 장수춤 등

● 기타 프로그램

- 실버, 일반인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실버VJ 참여 영상메시지 남기기, 영상유언봉사, 가족사진촬영 등
- 한자(포천, 합천)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훈써주기, 新서당 등
- 건강마사지, 건강진단, 수지침 등 건강관련 무료 체험
- 실버취업관, 취미생활, 노후생활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역 정서 교감 프로그램
- 실버나눔터(소장품 전시 및 판매) : 문화원장, 이사, 회원, 어르신들의 소장품 바자회
- 지역 특산물 전시 및 판매 : 지역 고유의 특산물 전시, 판매, 경품 등

● 실버문화사랑축제란?

『실버문화사랑축제(since 2006)』는 전국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지역의 문화리더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놀라운 실력과 뜨거운 열정을 뽐내는 장입니다. 모든 세대가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친구가 되어 함께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세대교감 놀이마당입니다.

홈페이지 www.silverang.org

지역의 생업^{生業}과 민속

이번 호에서는 지역의 생업과 민속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생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민속 이외의 것들

특정 지역의 민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속 이외에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와 같은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자연환경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 지역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민속은 그 지역의 다양한 배경에 의해 형성되어 전승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다양한 민속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해서 살펴보아야 할 분야 중에 하나인 생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 활동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그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동대상에 투입시킴으로써 유용한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어업·수렵·광업·상공업 등이 바로 생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생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농부·어부·광부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듯 생업은 바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직업 및 생산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 보이는 다양한 민속들은 지역 사회의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민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생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생업에 따른 민속의 변화

생업의 다양한 생산 양식 및 활동 등은 지역 민속은 물론 다양한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생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에 맞게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속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생업의 변화와 지속 여부에 따라 민속이 쇠퇴되거나 혹은 전승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지역에는 하나의 생업만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에서도 넓은 하천과 바다와 인접해 있다면 농업 이외에 다양한 생업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인이 하나의 생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생업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철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런 생업의 특징과 지역의 민속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이들 민속이 이들 생업으로 인해 어떤 특징이 보이는 가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생업 주기와 민속의 관계

지역의 민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역의 생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생업에 따라 각 지역의 민속이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업(생산) 주기와 민속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업 주기는 특정 생업에 맞는 생산 활동의 주기를 말하는 것으로 농업에서는 특정 작물을 파종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수확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업 주기는 작물(배추·무·고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작물인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시풍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런 생업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음력 5월 5일의 단오절은 바로 벼를 파종한 이후에 행하는 것이며, 팔월 한가위는 벼의 수확과 관련 있다. 세시풍속과 생업 주기와 관련성은 '호미씻이'(김매기가 끝날 무렵에 행해지는 것으로, 이날에는 그동안의 힘든 노고를 달래며, 하루 술과 음식을 마시며 노는 날이다.) 등의 다양한 민속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벼농사 주기를 제보자들의 경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지역 민속을 조사·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업을 보면 지역의 민속이 보인다

생업은 또한 지역의 민속 내지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지역의 생업을 이해하면 지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민속 내지 문화적 특징을 읽어내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어촌 지역은 농촌과 달리 바다라는 무대를 터전으로 생업활동을 하기에 농촌에 비해 작업 도중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업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농촌의 경우에는 일 년에 수확하는 벼의 양이 해마다 비슷하지만, 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어획량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촌 지역의 민속 내지 문화적 특징을 밝혀낸다면, 어촌 지역의 문화에는 현세적(現世的 : 믿음이나 생각 따위가 현세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속의 소멸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업

지역의 민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생업을 주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업은 특정 민속의 소멸과

형성 및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역의 다양한 민속이 소멸되거나 변화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어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화 이후 다양한 생업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속이 주를 이루었지만, 산업화와 새로운 생업의 등장으로 인해 농업과 관련된 민속들이 사라지거나 변화되고, 그 생업에 만든 새로운 민속이 생겨났다. 실제로 농업을 중시하던 시기에 필요했던 두레패가 농업의 쇠퇴와 새로운 기계 및 농약의 등장 등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두레패에 있던 팽과리와 악기 등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 전통예술 및 다양한 연희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두레패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민속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민속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 생업

지역의 민속을 이해하는 데 지역의 다양한 생업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삶을 살아온 이들의 경험을 통해 지역의 민속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지, 지역의 생업만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민속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및 연구자들은 지역의 생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의 다양한 민속에 대한 정보는 시군 등에서 발간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지역의 생업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민속조사를 목적으로 지역을 찾은 연구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지역의 다양한 생업을 조사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련 연구자들과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업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업의 종류(농업, 어업, 산업, 임업, 수공업, 상업), 각 생업의 주기, 생업의 변화양상(변화과정), 각각의 생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 지역과 특정 생업의 관계(가령, 김포에서 인삼재배를 하게 된 이유가 이북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사람들이 월남한 이후에 김포에 정착하여 인삼을 재배했기 때문), 생업과 관련된 다양한 물질도구(농기구 등) 등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역 다양한 민속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중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